

16th Asian
Athletic Championship
2005 INCHEON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9월 1일~4일 문학경기장

아시아 최대 육상축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9월 인천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건각(健脚)들의 잔치가 될 이번 대회는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9월1일부터 4일까지 육상강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45개국 선수와 임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입니다.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7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희망과 번영의 다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대교 기공식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기공식 치사를 통해 “인천대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앞으로 인프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인천대교가 완공되는 2009년에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이 현실로 가시화되고, 인천은 세계를 향한 번영의 관문으로서 선진한국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인천대교는 희망과 번영의 다리”라며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대교 기공식에는 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안상수 시장과 박승숙 시의회 의장 및 중앙부처 장관, 아멕(AMEC)사 관계자, 지역 인사 및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2009년 10월에 개통될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총 연장 12.343km)을 연결하는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로 왕복 6차선에 주 경간폭 800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이다.



08



16



48

- 02窓 2005 | “희망과 번영의 다리”
- 27 VIVA INCHEON | 동산고 ‘청룡’ 품다
- 28 굿인천 굿뉴스 | 인천지하철2호선 노선 계획 수립 외
- 31 의정소식 | 인천광역시의회 ‘백만인 에너지절약 실천약속장’ 전달 외
- 32 군·구 풍향계 |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외
- 3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 ‘비전 21’ 개관 외
- 34 브리핑 | 인천시대표단 북한 방문 성과
- 36 이달의 공연 | 추억의 Boney M 인천공연 외
- 40 현장속으로 | 공무원 중소기업현장체험단
- 42 앓,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인터넷 쇼펍몰 사기
- 43 Youthzine | MOO 미국대사관 초청 방문
-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⑦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 46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⑦ 물류 중심도시 건설
- 47 여기가 거기 | 부평도호부청사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아홉 번째 사람 | 이일호 씨
- 52 독자마당 | 가고싶은 바다 외
- 55 Info Box | 7월부터 승용차 부제 운영합니다 외



- 04 그 바다 ... 海 맑다
- 06 백령도
- 08 대청도
- 10 연평도
- 12 덕적도
- 14 자월도 · 송봉도 · 이작도
- 16 영흥도 · 선재도
- 18 신도 · 시도 · 모도 · 장봉도
- 20 용유도 · 무의도
- 22 강화도 · 석모도 · 불음도 · 주문도 · 교동도
- 26 섬으로 가는 배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7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백령도 두무진 형제바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그리고 용유도
인천 바다는 海 맑습니다.

태양에 비친 조각난 파도가
은빛해변을 살며시 간질입니다.
밤하늘의 크리스탈 별빛이
코발트색 밤바다를 부드럽게 애무합니다.

인천에 맑은 海 뜹니다.
편리하고 가까운 인천 바다의
올 여름은 無더위!

사진 _ 김성환 · 김정식 · 유재형(자유사진가)

그 바다... 海 맑다

수줍어 바다끝에 홀로 남다

백령도 I



1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끝의 섬 백령도. 4시간에 걸친 항해 끝해야 겨우 발딛을 수 있는 곳이지만 4시간의 수고는 결코 아깝지 않다. 놀 곳, 쉴 곳, 볼 곳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백령도 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두무진의 기암괴석들을 감상하는 일. 두무진 일대의 해안은 전체가 '명승지'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절경이다. 그 해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두무진 포구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포구에는 어선을 개조해 만든 네 척의 유람선이 차례로 관광객들을 바다로 실어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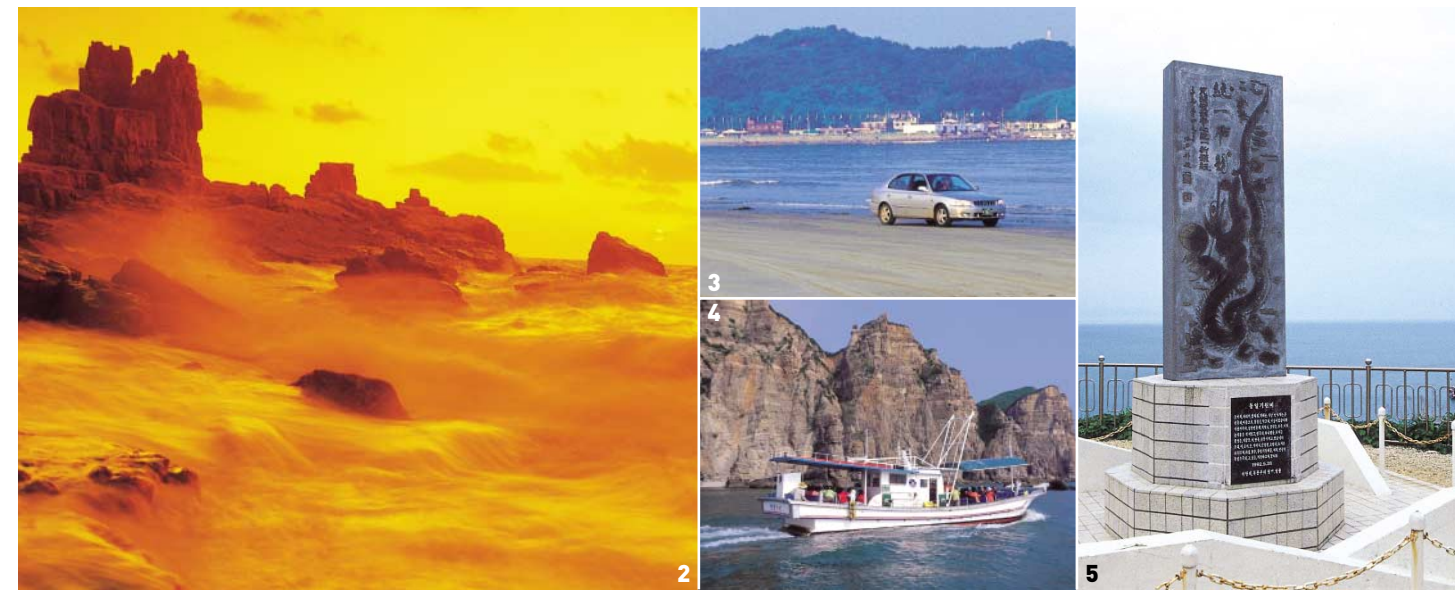
두무진은 마치 여러 장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모양새라는 데서 이름 붙여진 포구다. 유람선에 승선하면 입담 좋은 선장이 승객들의 귀와 눈을 온통 사로잡는다. 포구를 떠난 유람선은 40여분의 항해 동안 선대암을 비롯해 신선바위,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형제바위, 병풍바위, 남근바위 등을 차례로 만나는 즐거움을 준다.

백령도에는 4개의 천연기념물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다물범. 선대암과 코끼리바위를 지나면 바다 물범들이 낮잠을 즐긴다는 물범 바위에 닿는다. 천연기념물인자라 유람선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수줍은 듯 어느새 물속으로 자맥질해버려 멀리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이 좋으면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하는 물범과 맞닥뜨리게 된다.

물 맑은 해변이자 백령도의 두 번째 천연기념물은 **사곶천연비행장**.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어찌나 단단한지 천연비행장으로 쓰였다는 곳이다. 단단하기도 하려니와 길이 3km 너비 100m의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웬만큼 사람이 모이지 않고는 북적이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한여름이면 이곳에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지만 여느 때는 바다에 빠질 듯한 스릴을 맛보며 드라이브를 하는 맛은 사곶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별미다.

콩돌해안은 수없이 작은 자갈들로 이뤄진 바닷가로 백령도에 있는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 가느다란 모래가 발끝을 간질이는 여느 바다와는 달리 콩알만한 작은 돌들이 해변을 꽉 채우고 있다. 그 작은 돌들이 바닷물에 밀려왔다 밀려나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옥구슬 굴리는 소리와 다름 없다. 해안에 깔려 있는 작은 돌맹이 위를 맨발로 걷노라면 지압효과 또한 그만이다.

백령도의 마지막 천연기념물은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이다. 진촌리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분포돼 있는 현무암에는 황록색을 띤 감람암이 군데군데 박혀있다. 감람암을 품고 있는 현무암은 마그마의 상태와 분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자료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1 콩돌해안 2 석양에 물든 두무진 해안 3 사곶해변에서만 할 수 있는 모래사장 드라이브 4 백령도 유람선 5 통일기원비

:: 한걸음 더

백령도는 소설 심청전의 무대가 된 곳이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연꽃을 타고 떠내려 온 곳이 바로 백령도 앞바다라는 것이다. 심청각은 지난 1999년 심청이의 효 의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건립됐다. 심청각에는 심청전을 원작으로 하는 소설과 판소리, 영화작품의 대본 등이 전시돼 있다. 심청각 주위에서는 맑은 날이면 북한 땅을 건너다 볼 수 있고 2층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해 장산곶 등을 코앞으로 당겨서 볼 수 있다. 두무진 가는 길목에 백령기상대가 새로 문을 열었다. 넓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해안선의 절경을 감상하고 싶은 이들이 아름다움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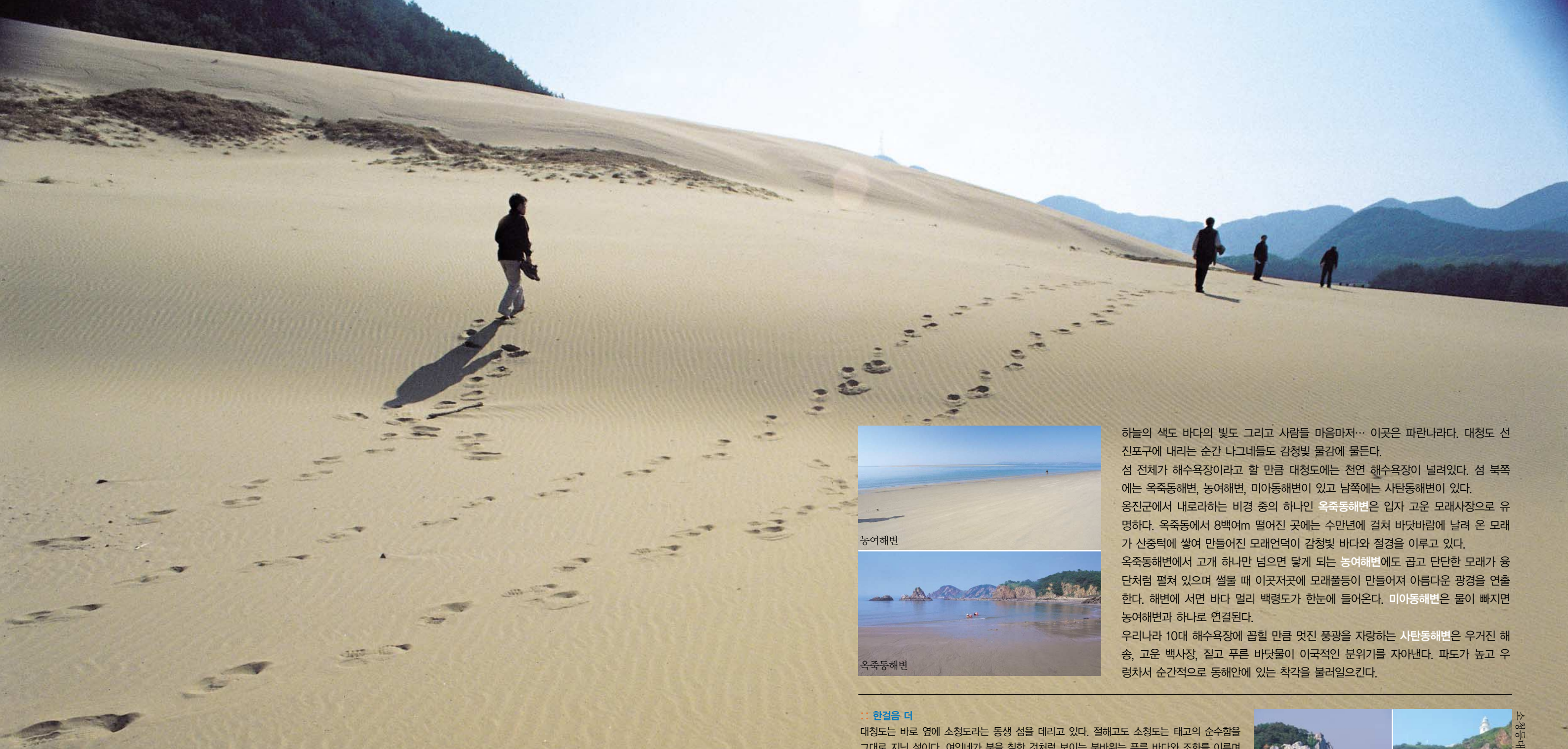
심청각

유람선 _ 백령관광(836-1132) 파랑새관광(836-1129) 해당화관광(836-1448) 선대관광(836-0755) 대인 8천원 / 중고생 7천원 / 어린이 5천원

숙박 _ 이화장(836-5101) 문화모텔(836-7001) 웅진모텔(836-8001) 그린파크(836-5551) **숙박문의** _ 백령면사무소(836-1771~2)

길 _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아침에 두번 배가 떠난다. 소청도·대청도를 들른 배는 4시간만에 백령도 용기포항에 닿는다. 섬에는 여행사도 있어 렌트카로 섬을 돌아볼 수 있고 배 닿는 시간에 맞춰 민박집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배편문의 _ 진도운수(888-9600) 온바다(884-8700)



농여 해변



옥죽동 해변

하늘의 색도 바다의 빛도 그리고 사람들 마음마저... 이곳은 파란나라다. 대청도 선진포구에 내리는 순간 나그네들도 감청빛 물감에 물든다. 섬 전체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대청도에는 천연 해수욕장이 널려있다. 섬 북쪽에는 옥죽동해변, 농여해변, 미아동해변이 있고 남쪽에는 사탄동해변이 있다. 웅진군에서 내로라하는 비경 중의 하나인 **옥죽동해변**은 입자 고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하다. 옥죽동에서 8백여m 떨어진 곳에는 수만년에 걸쳐 바닷바람에 날려 온 모래가 산중턱에 쌓여 만들어진 모래언덕이 감청빛 바다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옥죽동해변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닿게 되는 **농여해변**에도 곱고 단단한 모래가 웅단처럼 펼쳐 있으며 썰물 때 이곳저곳에 모래풀들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해변에 서면 바다 멀리 백령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미아동해변**은 물이 빠지면 농여해변과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10대 해수욕장에 꼽힐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사탄동해변**은 우거진 해송, 고운 백사장, 질고 푸른 바닷물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도가 높고 우렁차서 순간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한걸음 더

대청도는 바로 옆에 소청도라는 동생 섬을 데리고 있다. 절해고도 소청도는 태고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닌 섬이다. 여인네가 분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 분바위는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해안선을 따라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 거대한 바위는 그믐밤 바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배들의 방향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08년 1월에 처음 불을 켜 소청도 등대는 섬 동쪽 끝에 고고히 세워져 있는 섬 속의 또 다른 섬이다. 매일 밤마다 등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줄기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두 쪽으로 가른다. 15만 촛광(cd), 촛불 15만 개의 밝기. 23마일(37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빛이다.



분바위



소청도

감청빛 물에 빠지다

대 청 도 |

길 _ 인천연안부두를 떠난 초쾌속선은 먼저 소청도에 들르고 대청도에 간 다음 백령도로 떠난다. 대청도까지 3시간40분가량 걸린다. 대청도에는 농여촌공영버스 1대가 하루 8차례 섬을 돈다.
배편 문의 : 진도해운(888-9600) 온바다(884-8700)
숙박 _ 사탄동해변 주변에는 숙박업소가 있지만 다른 해변에는 거의 없다.
엄지(836-2035) 희망(836-2102) 문화 (836-2015) 선진(836-2138) 경동(836-3009) 소청(836-3052) 웅진(836-2021)
숙박 문의 _ 대청면사무소(836-2004)

자유인 등대절벽에 서다 연 평 도 |



연안부두에서 물살을 시원스레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리는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남짓, 조기파시와 꽃게로 이름난 연평도를 만난다. 섬의 모양이 바다 위에 평평하게 늘어놓아 뺨친 형이라 하여 '연평도'. 물에서 뱃길로 145km 떨어진 연평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서해 최대의 어항으로 통한다. 태고적 모습을 간직한 섬은 세상사야 알 바 없다는 듯 바다와의 밀어에 폭 빠져있다. 홍진(紅塵) 물은 침입자는 섬과 바다의 청정함으로 정화되고자 그저 반하고 사랑하고 싶어 안달이다.

연평도는 섬 전체를 도보로 관광하기 알맞다 싶을 만큼의 크기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선착장에서 마을까지는 1.5km 거리로 걸어서 20분 정도면 족하다. 연평도 본 섬 여행의 첫 코스는 **등대절벽**, 일명 **빠빠웅** 절벽이다. 영화 <빠빠웅>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는 그 절벽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땅으로부터 높이가 40여m, 보면 볼수록 정말 그럴싸하다. 여기서 차로 15분만 달리면 **구리동**이다. 썰물 때면 백사장이 5백m 정도 모습을 드러낸다. 구리동 외에도 자연학습장으로 관찰은 **새마을**이나 백사장 이 일품인 **구룡나루**가 있다. **가래칠기 절벽**에서는 북한이 눈에 잡힌다. **아이스크림바위**의 절경도 빼먹지 말아야 할 코스이다. 거울에 바위 위로 눈이 쌓이면 꼭 과자가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된다고 해서 이런 애칭을 얻었다.

바다낚시는 섬을 돌아보고 남는 시간에 주어지는 보너스. 옛부터 고급 어종으로 대접받아온 준치를 배낚시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야심한 밤에 썰물 때가 왔다면 손에 랜턴이나 플래시를 들고 안목어장으로 나갈 일이다. 바와지라는 게가 널려 있는데 소리, 굴을 비롯 해 낙지도 잡을 수 있다.

이제 나그네는 나긋나긋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한결 푸르려진 눈과 마음으로 귀향(歸鄕)을 준비한다. 빛의 정화의식이 준비되어 있다.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지나는 당섬과의 연륙교는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바다 속으로 해가 떨어졌다가 아침이면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1 빠빠웅 절벽 2 구리동해수욕장 3 아이스크림바위 4 연평도 등대 5 조기탑

:: 한걸음 더

- **충민사(향토유적 제1호)** 조선중기의 명장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전설에 따르면 장군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고 청나라를 치기 위해 명나라로 가던 중, 식수와 부식을 구하기 위해 연평도에 들렀다가 지금의 당섬 남쪽 '안목'에 가시나무를 무수히 꺾어 꽂았다고 한다. 간조 때 이름 모를 물고기를 무수히 포획하였는데,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초라 하여 해마다 봄이면 전 주민이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
- **관광전망대(조기역사관)** 조기잡이 풍물을 재조명하며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지난 2001년에 건립한 곳으로 복원하느라 지는 석양이 아름답기 그지없어 실향민의 마음을 몽클하게 하는 곳이다.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서해교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병풍바위(오석해안)** 소연평도. 마치 병풍을 쳐놓은 것 같아 보인다 하여 병풍바위라 불린다. 주변에는 티타늄 광산에서 나온 티타늄 조각이 둥글게 마모되어(오석) 해안가에 모여 있는 일명 '오석해안'이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검은 돌들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잔 자갈밭을 맨발로 걸으면 지압효과가, 햇살에 달궈진 자갈 위에 누우면 찜질효과 만점.



충민사

관광전망대

찾아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쾌속선 씨플레인호(2시간 소요)가 1일 1회 왕복한다. 실버스타호(4시간 소요)는 1일 1회 편도운행하며 주 1회 왕복한다. 섬 안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민박집에 미리 전화를 해서 교통편을 제공받는 것이 좋다. 정확한 운항시간은 일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출발당일 여행선사로 확인해야 하며 소연평도는 현지 선착장 접안 시설이 미비하여 현지 기상 및 조석에 따라 운항되지 않을 수 있다.

배편 문의 _ 진도운수(주)(888-9600) 우리고속훼리(주)(887-2891~5)

숙박 _ 서해장(831-4555) 제일(831-4363) 황해(833-1050) 해상(832-4156) 연도파크(831-2065) 연동타운(831-3705) 연평(831-4165) 웅진(832-4193)

숙박문의 _ 연평면사무소(880-2602, 831-4471)



파도, 큰물 만들다

덕 적 도 I

물이 깊어 '덕물도' '큰물이' 라고 불리는 덕적도는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지이다. 대표 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리해변**은 경사가 완만한 30만평의 넓은 백사장 뒤로 200년이 넘는 울창한 해송 숲과 해당화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

오래 전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덕분에 해수욕장 주변에는 깨끗하고 편리한 펜션급 민박집을 비롯해 텐트촌, 족구장, 테니스장, 노래방, 자전거 대여점 등 위락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해변 끝 쪽에 있는 갯바위에 올라 우럭과 놀래미를 낚으며 '강태공'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다.

인근의 발자름 해변과 **속개 · 소재해변**은 시골벽적으로 즐기기도 좋고 한적하게 즐기고 싶은 이에게 제격이다. 섬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능동자갈마당해변**은 덕적도의 또 하나 명물이다. 이름 그대로 모래 대신 주먹만한 돌멩이부터 공기돌 처럼 작은 자갈까지 넓은 해변에 뽀뽀하게 깔려있다. 돌멩이를 스치는 파도소리와 불그스레한 낙조, 그리고 갈대밭의 실루엣이 찾는 이의 가슴에 아리따운 낭만을 심어준다.

덕적도는 바다 못지않게 산도 일품이다. 섬 중심에 우뚝 솟은 비조봉(해발 3백70m)은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발아래 펼쳐진 초록빛 바다를 보면서 이색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물안개에 살짝 싸인 덕적도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은 신비감마저 풍긴다.



1 덕적도의 아름다운 해안선 2 능동자갈마당 3 갯바위 낚시 4 발자름해변 적송군락지 5 덕적도의 아름다운 낙조 6 서포리해변

길 _ 인천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초쾌속선 프린세스호(50분 소요)나 원광페리호(차량 승선 · 2시간 15분 소요)를 탄다. 덕적도 안에는 마을버스가 다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문의** _ 우리고속(887-2897))

숙박 _ 덕적도는 각 해수욕장 주변으로 여관이나 민박집들이 수도룩하고 텐트를 칠 곳도 넉넉하다. 그린비취(831-2311) 중앙여관(832-2811) 한진여관(831-2996) 은하모텔(831-3613) 리라여관(831-5061) 천일여관(832-7307) 덕진여관(832-7272) 유정여관(832-8100) 덕적여관(831-2944) 광성모텔(831-2006) 등이 있다.

문의 _ 덕적면사무소(831-7701, 880-2615) 서포리번영회(831-6623)

:: 한걸음 더

덕적도 주변에는 소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33개의 무인도가 바다 위에 가족처럼 떠 있다. 소야도는 덕적도에서 0.5km 떨어진 섬으로 약 700m 짜리 은빛 모래사장이 있는 떼부루해변이 있다. 바다낚시를 할 수 있으며 섬 전체에서 야영이 가능하다. 문갑도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아담한 약 300m 짜리 한할리해변이 있다. 해변에서는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선미도 · 백야도 · 지도 · 울도에는 해수욕장이 없는 게 다소 아쉽지만 대신 우럭, 놀래미 등 물고기가 잘 잡혀 낚시꾼들의 천국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등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미도 등대, 소야도의 장군바위, 그리고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깃든 백야도의 선단여와 꿈을 닮은 곰바위 등은 꼭 보고 와야 할 명소들이다.

길 _ 이틀에 한번씩 출수 날에 덕적도 진리에서 오전 11시에 섬을 연결하는 배가 출발한다. 덕적도 문갑도(20분) 굴업도(50분) 백야도(1시간 10분) 지도(1시간20분) 울도(1시간 40분). 피서철에는 매일 다니지만 날씨와 물때에 따라 항로 변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야도는 덕적도까지 온 다음 하루 다섯 번 왕복 운항하는 중선을 타면 5분 정도 뒤에 소야리 도우선착장에 도착한다. 선미도는 덕적도까지 온 다음 북리에서 목선을 타야 한다. (**문의** : 원광해운 884-3391)

숙박 _ 문갑리장(831-9937) 소야리장(832-5586) 울도리장(831-3467) 백야리장 (834-6306) 굴업리장(832-7100)등이다.



1 소야도 떼부루해변 2 안개에 싸인 선미도 등대 3 선단여 바로 밑에서 바라본 전경



검붉은 달 바다에 숨다

자 월 도 · 승 봉 도 · 이 작 도 |

1

자월도를 바다에 떠 있는 '검붉은 달'이라고 표현했다던가? 달빛이 밝으면 밝았지 검은데다 붉기까지 하다니 과연 이 바다에 비친 달은 어떤 색일까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하지만 바다에 비치는 달빛에 반하기에 앞서 자월도에 여장을 푼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바다에 반하기 마련이다. 달바위선착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처음 만나는 해변이 **장골해변**이다. 곱게 그린 반달모양의 눈썹처럼 생긴 장골해변은 1km 남짓한 모래톱이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사장이다. 거기에 적당히 자갈이 섞여있어 걷는 맛이 그만이다. 해변 뒤편에는 수십 년 된 아카시아나무가 병풍처럼 둘러 쳐져 있다.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신선노름이 따로 없다. 입장료와 야영료가 따로 없고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주차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해변 가까이에는 **장골소공원**이 있다. 해당화를 비롯해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어있고 야영하기에도 적당하다. 면사무소 앞에는 **큰말해변**이 자리 잡고 있다. 잔잔한 파도와 곱고 깨끗한 모래사장 등으로 가족단위 피서지로 좋을 뿐만 아니라 썰물 때는 조그만 소라, 고동, 참게 등을 주울 수 있어 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에도 그만이다. 자월도의 또 다른 매력은 국사봉 등산이다. 국사봉의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뒤로는 인천항이, 앞으로는 덕적도, 대·소이작도, 승봉도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섬에서 하는 등산이라 색다른 맛이 난다. 사슴개와 별난금은 가족들과 갯놀이 하기에 좋다. **별난금**은 바닥이 둥근 돌로 되어 있어 물이 무척 깨끗하다. 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드러나는 갯벌에서 소라와 고동, 낙지를 잡을 수 있다. 하늬바람이 많이 불어 추운 마을이라는데서 이름 붙여졌다는 **하늬개** 역시 바지락과 소라를 잡을 수 있고 바로 옆에 우럭과 놀래미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낚시터 국수당이 있다.



1 자월도 갑진모래 **2** 별난금 작살밭 **3** 대이작도 부아산 정상에서 본 소이작도 전경 **4** 사승봉도의 모래사구 **5** 승봉도 모래톱 위를 걷다 **6** 소이작도 손가락바위 **7** 승봉도 남대문바위 **8** 승봉도 쫓대바위

:: 한걸음 더

자월도 옆으로는 승봉도와 대이작도 소이작도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대이작도는 섬의 규모에 비해 큰풀안, 계남리, 풀치, 목장불 등 해변이 많다. 모두 모래가 깨끗하고 피서철에도 크게 붐비지 않아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에 적합하다. 그중 풀치해변은 동서 4km 남북 1km에 걸친 약 70만평의 백사장이 장관이다. 소이작도의 별안해변은 특히 자연미가 뛰어나다. 해안 곳곳의 갯바위 낚시터에서는 우럭 놀래미, 망둥어가 잘 잡히고 뽕에는 굴과 조개류가 풍부하다. 승봉도의 이일레해변은 물이 맑고 간조때 물이 멀리 빠지더라도 뽕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옆에 있는 무인도 사승봉도는 썰물때 섬 서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드러나는 사빈이 절경이라 모래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패밀리'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숙박 _ 자월도 자월면사무소 (836-1771~2), 자월번영회 (833-6033) / 승봉도 동양콘도 (832-1818) / 대이작도 강태무(834-0682) / 소이작도 강예식 (834-3767)

배편문의 _ 우리고속(887-291) 진도운수(888-8600) 대부대운(886-7813)

길 _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자월도를 거쳐 이작도, 승봉도에 닿는다. 각각 40분~1시간 남짓 걸린다. 대부도에서는 차를 가지고 배를 탈 수 있다. 각 섬에는 배시간에 맞춰 마을 버스가 다닌다.

물 끝에 즐거움 있다

영 흥 도 · 선 재 도 I



1

섬이란 돌레가 물로 싸인 육지를 말한다. 물로 둘러싸였으니 오가려면 배를 타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어쩌면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더 신비롭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토확장이니 도서개발이니 해서 섬 아닌 섬이 된 곳이 여럿 생기면서 오가기 편리한 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섬이 가진 매력을 십분 발산하면서도 차로도 쉽게 오갈 수 있으니 그 매력이 더할 밖에.

영흥도는 최근 육지와 연결된 섬치고는 막내 격이다. 대부도에서 다리를 건너 선재도에 쉽게 닿게 되더니 지난 2001년에는 선재도와 영흥도를 잇는 영흥대교가 완공돼 신나는 드라이브를 하며 갈 수 있는 섬이 됐다.

다리로 건너든 배를 이용한 영흥도 진두선착장에 닿으면 가장 먼저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섬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일주할 수 있는 도로다. 왼쪽 길을 택하면 가장 먼저 **용담리 해변**에 닿는다. 용담리해변은 백사장과 해송군락지가 함께 어우러진 바닷가다. 물이 빠지면 가족들과 함께 갯벌에 들어가 조개 등을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이 갯벌체험 하기에 그만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장경리 해변**에 닿는다. 장경리의 분위기는 용담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장경리는 서쪽해안으로 나 있는 바닷가라 일몰이 압권이다. 해송이 우거진 숲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 그 그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수평선으로 뚝 떨어지는 해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다.

길을 계속 따라가면 **십리포 해변**이다. 이곳의 해변은 왕모래와 작은 자갈로 이루어져 어린아이들도 해수욕하기에 알맞다. 또 해변 뒤편에는 서어나무(소사나무) 300여 그루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서어나무 군락지라 시원하기 이를데없어 굳이 바닷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피서가 따로 없다.

영흥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재도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던 곳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섬이다. **당남어 해변**은 동죽이나 조개잡기는 물론 바다 래프팅이나 세 바퀴 모터사이클로 해변을 달릴 수 있는 이색 놀이 시설 등이 있어 즐거움을 더해준다.



1 십리포해변 2 선재도앞 갯벌에서 바지락캐기 3 장경리해변 4 영흥대교 야경



:: 한걸음 더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고급 어류, 패류, 갑각류의 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지역 특산품종을 개발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해양수산 체험 학습관과 갯벌체험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물고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하기에 그만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체관람을 할 수 있고 관람료는 따로 없다. (883-0398)

통일사 영흥도의 최고봉인 국사봉 기슭에 자리 잡은 통일사는 울창한 숲을 자랑한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안선이 절경이다.



통일사

가는길 _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안산방면으로 진행해 월곶IC에서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를 지나면 선재도와 연결되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영흥도에 닿는다. 버스는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가는 차(태화버스 883-5111)를 이용할 수 있다.

숙박 _ 십리포해변 인근에 향토관광마음이 있어 민박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해변 주변에 민박집들이 즐비하다.

숙박 문의 _ 영흥면사무소(886-7800~2)



태양, 바다에 입맞춤하다

신도 · 시도 · 모도 · 장봉도 |

신도와 시도 그리고 모도는 푸른 바다에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히 떠 있는 섬들이다. 섬 끼리 연결하는 연도교를 이용해 해변과 야산을 넘나들며 30km를 굽이돌면서 3개 섬을 구경하는 맛은 색다르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도면의 이 소박한 섬들은 원래부터 여름에 놀거리가 참 많은 곳이다. 물이 차면 해엄치기와 갯바위에 앉아 물고기 낚기. 물 빠지면 갯벌에 나가 머드팩 하기, 바지락과 동죽 캐기 등 바다 놀이의 즐거움이 다양하다.

시도에는 길이 400여m의 고운 모래밭과 드넓은 소나무 밭을 갖춘 **수기해변**이 있다. 끝에서 끝까지 한달음이면 달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해변은 활처럼 휘어져 마치 호수처럼 아늑하다. 바다 건너 눈앞에는 마니산의 자태가 뚜렷하게 보이고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화도 장화리 해변도 손에 닿을 듯하다.

망동어, 우럭이 잘 잡히는 갯바위낙시터 노르메기를 거쳐 모도로 건너 갈 수 있다. 사람들이 불과 20여 가구 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섬 모도에는 **배미꾸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해변이 있다. 이 해변에는 '이일호와 모도'라는 조각공원이 있다.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들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봉도에 배가 닿으면 먼저 인어가 마중 나온다. 선착장에는 인어전설을 담고 있는 인어상이 세워져 있다. 주변에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웅암해변**과 고운모래가 펼쳐진 **진촌해변**은 물이 빠지면 섬이 육지로 변해버린 것처럼 끝 모를 갯벌이 펼쳐진다. 물이 빠지면 조개나 낙지, 동죽, 바지락, 대합이 지천이다. **한들해변**은 숲 속에 있어 조용하고 한적하며 진촌해변엔 100여 개의 텐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소나무 숲이 있다.

장봉도에는 영농체험과 바다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봉마을이 있다. 성진농원(746-8003)을 비롯해 장봉마을 농가에서는 감자나 고구마, 고추 같은 농작물을 심고 캐거나 포도봉지 씌우기처럼 과수원에서나 해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1 진촌해변 **2** 장봉도 인어상 **3** 진촌해변의 해상 숲 **4** 장봉도 앞 사막같은 모래 풀둥

:: 한걸음 더

시도에는 인기드라마 세트장이 두개 있다. 영재(비)와 지은(송혜교)가 티격 티격하면서 사랑을 이뤄갔던 <풀하우스> 세트장이 수기해변에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전망이 확 트인 통유리창, 푸른 하늘로 솟은 하얀 망루, 바다로 쪽 뻗은 나무데크. 정원의 장미터널... 말 그대로 만화 주인공들이나 살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다.

인근 바닷가 언덕에는 준영(권상우), 해인(김희선)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다. 지중해 해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얀색조의 이 별장 세트장은 섬 끝자락에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다. 바다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별장에서 보면 강화도 마니산 봉우리가 코앞이고 동막해변이 앞마당처럼 보인다.



풀하우스 세트장

슬픈연가 세트장

길 _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영종대교를 지나 첫 번째 IC에서 빠져나오면 삼목선착장에 다다른다. 차량이 많을 때는 장봉도와 신도를 따로 따로 운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줄을 서기 전 목적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승선 요금 신도는 승용차 10,000원, 사람 1,500원이며 장봉도는 승용차 15,000원 사람은 2,300원 이다.

배편 문의 _ 세종해운(884-4155)

숙박 _ 신도, 시도에는 신도장(886-3677) 등이 있으며 네 섬 모두 민박집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숙박 문의 _ 북도면사무소(752-4008)

노을 아래서 파도를 줍다

용유도 · 무의도 |



1

저마다 분위기가 다른 해변이 손잡고 섬을 둘러싸고 있다. 용유도에는 마시란해변,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등이 줄지어 있어 섬 전체가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을왕리해변**은 완만한 경사와 고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바닷가 끝 쪽에 있는 갯바위 위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수평선 넘어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해변이다. 아래쪽으로 선녀바위 해변이 있어 모래사장과 바위가 잘 어우러진 광경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

을왕리해변, 왕산해변보다 길이가 긴 **마시란해변**은 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갯벌이 펼쳐지고 해변을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얼마 전에 무질서하게 있던 포장마차들이 철거돼 시야가 확 트여지면서 이번 여름휴가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차를 바닷가 근처에 대놓을 수 있는 모래둔덕과 소나무 숲이 울창해 야영을 하기에 좋다.

왕산해변은 을왕리해변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될, 불과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신나고 쾌활한 피서를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을왕리가 좋다면 좀 조용하고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은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모래사장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는 왕산해변이 제격이다. 특히 왕산 해변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낙조는 용유8경의 하나이다.

무의도 서쪽에 있는 **하나개해변**은 은빛 모래사장과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안전한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물차면 해엄치고 물빠지면 조개잡는 등 물끝따라 하루종일 바다를 벗삼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변가에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그림처럼 서있다.

실미해변은 푸른 해송을 배경으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바다와 숲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해변 주변의 소나무 숲은 한낮에도 햇살 한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어 바다 바람 맞으며 여름 한낮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인 실미도로 건너가 섬을 둘러볼 수 있다.



1 · 2 용유도 을왕리해변 3 무의도 하나개해변 4 무의도

:: 한걸음 더

호룡곡산과 국사봉 _ 옷자락을 나풀거리는 무희(舞姬) 같다고도 해서 이름이 붙여 진 무의도에는 '서해의 알프스'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호룡곡산(244m)과 국사봉(230m)이 솟아있다. 고려바위, 마당바위, 부처바위 등 기암절벽이 있는 두 봉우리는 바다보며 하늘등산을 할 수 있는 섬의 명소이다. 생태관찰로(340m), 산림체험로(4km), 전망대 등을 갖춘 삼림욕장도 있다.

샘구미선착장~마을입구등산로~호룡곡산~구름다리~국사봉~애기봉~실미해변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 정도 걸린다.

길 _ ① 용유도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대교를 지나 용유/무의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면 닿을 수 있다. 또는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영주해운 762-8880)을 이용해 영종선착장(구읍나루터)에 내린다. 공항 남로를 이용해 을왕리 표지판을 따라 달리면 마시란해변-선녀바위해변-을왕리해변-왕산해변에 닿는다.

② 무의도는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을 이용해 영종선착장에 내려 공항남로를 타고 용유방면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잠진도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행 여객선(무의해운 751-3354~6)을 이용하면 큰무리선착장에 도착한다. 또는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에 갈 수도 있는데 연안부두에서는 차를 배에 실을 수 없다.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숙박 _ 용유동사무소(760-7991~7) 하나개해수욕장변영회(751-8866, 751-8833) 실미해수욕장변영회(752-3636)

천년 바람 해변에 잠들다

강 화 도 · 석 모 도 · 불 음 도 · 주문 도 · 교 동 도 |



강화는 이미 섬이 아닌 섬이 된지 오래다. 서울 등지에서 오는 이들은 강화대교를, 인천에서 찾는 사람들은 초지대교를 이용하면 손쉽게 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섬 곳곳이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자 청량함을 머금고 있는 천혜의 피서지이기 때문이다.

강화내륙에서 휴양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가볼만한 곳은 강화 남단의 동막해변. 마니산 남단에 위치한 **동막해변**은 폭 10m 길이 200m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동막해변을 비롯한 강화 남단의 해변은 세계 4대 갯벌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물이 빠지면 직선거리로 4km, 무려 1천8백만평의 갯벌이 속살을 드러낸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갯벌에서 동죽이나 조개를 관찰하고 보호해 주면서 자연사랑도 배울 수 있다.

동막해변과 가까운 곳에 **함허동천**이 자리잡고 있다. 마니산 자락의 함허동천 계곡에는 시범 야영장이 설치돼 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마니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이곳에 그대로 살아 있다. 야영장, 취사장, 놀이시설, 다목적 광장과 넓은 주차장이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동막해변에서 강화를 방면으로 커브를 돌자마자 오른쪽이 **분오리돈대**이다. 분오리돈대는 조선시대 때 쌓은 것으로 초지진의 외곽 포대이다. 이 돈대는 동·서·남·북이 바다에 면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절경이다. 또한 분오리 포구에는 시간만 잘 맞으면 어부들이 직접 잡아 판매하는 해산물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강화는 이밖에도 담장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처럼 민족의 얼이 서린 참성단에서부터 전등사, 정수사, 강화 고인돌, 고려궁지, 마니산,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적을 둘러보며 역사공부를 하기에 그만이다.

:: 한걸음 더

강화 남단의 갯벌은 희귀 철새와 자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명의 보고. 이 해변 근처에 최근 갯벌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34-6번지에 부지면적 12,873㎡(3,894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갯벌센터는 친환경적인 초현대식 건물로 세워졌다. 갯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갯벌센터 1층에는 갯벌 생물과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 자유롭게 갯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서관, 인터넷실과 갯벌 전시관 등이 자리잡았다. 2층에는 환경관련 상품이 전시되고 강화 남단 갯벌에 서식하는 철새, 텃새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장도 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7월 7일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이라 무료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초등학생 800원. (937-5057, 4057)

석모도

강화 내륙을 벗어나면 또 다른 섬들이 방문객을 반긴다.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닿는 석모도는 섬 전체가 색다른 리조트 같다. 해변과 사찰, 포구, 산, 낚시터에 요즘 유행하는 팬션들,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그리고 쉴 만한 곳이 모여 있는 탓이다.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달게 되는 곳은 **삼랑염전**.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으로 바다에서 퍼 올린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천일염을 얻는다. 띄약별에 맞서 소금보다 더 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모습과 오후 4시쯤 되면 수북이 쌓인 소금탑을 볼 수 있다.

민머루해변은 해수욕장을 감싸 안 듯이 마을이 뒤쪽으로 버티고 있어 아담하고 아늑하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해변은 물이 빠지면 천혜의 갯벌이 나타난다. 머드팩을 해도 좋고 맨발로 들어가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와 조개, 낙지를 잡는 맛도 쏠쏠하다.

민머루해변에서 800m정도 더 가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장구너머**라는 예쁜 이름의 포구에 닿는다. 봄에 잡히는 밴댕이가 유명했던 곳인데 그 유명세를 타고 지금은 횃집들이 즐비하다. 특히 이곳은 갯이갈매기들이 횃집에서 내다 버리는 생선 찌꺼기를 얻어먹는 풍경이 이채롭다. 포구에 배가 들어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싱싱한 물고기를 구경하기에 아주 좋다.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중의 하나이다. 이곳에서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일이나 낙조 포인트로 더할 나위 없는 한가라지 고개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일 모두 한가롭기 그지없는 휴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다. 영화 시월애의 무대가 됐던 **하리낙시터**는 더위를 피해 호젓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종합선물세트를 돌아보려면 하루 해로는 어렵다.



볼음도

외포리에서 배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섬 볼음도는 민통선이 라고 부르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덕분에 웬만해서는 들어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만큼 좀처럼 북적이지 않는 섬이다. 볼음도 선착장에 닿으면 먼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온다. 새들도 사람만큼이나 편안히 쉬며 안식하는 섬이 볼음도다.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조갯골해변**과 **영돌해변**에 차례로 닿는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해변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스펀지를 깔아놓은 듯 폭신한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그만이다.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10만평 규모의 볼음저수지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볼음저수지에는 기물치를 비롯 해 붕어, 빠가사리 등 토종 어종이 많이 살고 있다. 농사를 위해 만들어진 담수호라 공식적으로는 낚시가 금지돼있지만 알음알음 찾아온 낚시꾼들은 이곳을 놓치지 않는다. 볼음저수지 옆에 있는 은행나무 역시 놓치면 아쉬운 볼거리. 800년 전에 바다에 떠내려 온 것을 심었다니 나무의 나이가 녹녹치 않다. 어른 서넛이 팔을 뻗어야 겨우 닿을 듯한 나무의 위용이 말해주듯 그 그늘에 앉으면 여름 더위는 얼씬도 하지 못한다.

주문도

볼음도와 이웃하고 있는 주문도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 전도지역이다. 마을안의 서도중앙교회는 역사가 근 110년에 이른다. 실내 천정이 고대 로마건축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어 우리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주문도 역시 멋들어진 해변을 갖고 있다. **대빈창해변**은 길쭉한 해안을 앞에 두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뒷장술해변**은 곱고 단단한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해변 뒤쪽에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어 야영하기에 그만이다.

교동도

교동도는 역사의 섬이다. 놀고 즐기기 보다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자의 화상을 모신 교동향교, 교동8경의 하나였던 화개사, 연산군 유배지 등을 둘러보며 역사탐방을 하기에 좋다. 섬 안의 고구려저수지는 예전에 고구려읍이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곳이다. 담수능력이 28만평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낚시꾼들이 세월을 낚는다.



1 석모도 민머루해변 2 볼음도 조갯골해변 3 볼음도 800년생 은행나무 4 주문도 서도중앙교회 5 교동도와 창후리선착장 사이에 드러난 모래사 6 교동도 교동읍성 7 교동도 화개사

길 _ 인천과 강화를 잇는 시내버스가 새로 생겨 강화 가기가 한층 쉬워졌다. 700번 버스는 인천터미널 ~ 간석오거리 ~ 검단사거리 ~ 초지대교 ~ 강화군청 ~ 강화 서문간 58.1km 구간을 6대의 버스가 50분 간격으로 1일 20회 운행을 한다. 701번 버스는 계산역 ~ 공촌사거리 ~ 검단사거리 ~ 초지대교 ~ 온수리 ~ 마니산에 이르는 41.8km구간을 4대가 45분 간격으로 1일 23회 운행한다. 석모도와 볼음도 · 주문도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삼보해운(932-6007)을 이용하고, 교동도는 창후리 선착장에서 화개해운(933-3212)을 이용해야 한다.

숙박문의 _ 동막해변 화도면사무소(937-1001~3) 석모도 삼산면사무소(932-3001) 주문도 · 볼음도 서도면사무소(932-7004) 교동도 교동면사무소(932-5001~3)



동산고 ‘청룡’ 품다

전통의 야구 ‘명가(名家)’ 동산고등학교가 제60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동산고는 지난달 9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대구고와의 결승 경기에서 10-8,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39년 만에 대회 우승기를 되찾았다. 대회 6번째 우승이다. 올해로 팀 창단 60년을 맞는 동산고는 청룡기 대회 역사와 같은 나이에 정상을 차지해 그 의미를 더했다.

동산고는 1955년 제10회 대회부터 제12회 대회까지 3연패로 우승기를 영구 보전한 팀으로 청룡기와 유독 인연이 깊었다. 동산고는 1966년 5번째 대회 우승기를 거머쥔 이후, 지금까지 대회 정상을 밟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우승으로 ‘구도(球都)’ 인천의 명성을 이어갔다.

국내 고교야구에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룡기 대회에서 6회 우승은 경북고 이후 동산고가 두 번째다.



■연안부두 → 웅진섬

항 로	선 명	선 사	전화번호	출 항 시 간		운항회수
				인천 → 도서	도서 → 인천	
북도면(신·시·모도·장봉도)	세종3호	세종해운	884-4155	07:00~18:10	07:30~19:30	수시
연평도	실버스타호	진도운수	888-9600	10:00	09:00	1회
	씨프레인	우리고속	887-2891	10:50	13:00	1회
백령도·대청도	아일랜드호	진도운수	888-9600	07:10	12:10	1회
	데모크라시5호 (만다린호)	온 바 다	884-8700	08:00	13:00	1회
덕적도	프린세스	우리고속	887-2891	09:30	10:50	2회
	오클랜드	진도운수	884-9600	08:30	09:50	1회
자월도	파라다이스	우리고속	887-2891	09:30	10:50	2회
	신광훼리	진도운수	888-9600	15:00	16:00	1회
승봉도·이작도	대부고속훼리1호	대부해운	886-7813	08:30	11:45	1회
지월도·덕적도	대부고속훼리2호	대부해운	886-7813	09:00	16:00	1회
				09:00	11:30	2회
				14:00	16:00	2회

■강화 ↔ 섬

항 로	선 사	전화번호	강화발	기항지발	운항회수
외포리 - 석모도	삼보해운	932-6007	07:00~20:30	07:00~20:30	수시
창후리 - 교동도	화개해운	933-3212	07:30~19:00	07:30~19:00	수시
외포리 - 주문도·불음도	삼보해운	932-6007	09:30 / 16:00	07:30 / 14:00	2회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에는 배편이 증편됩니다. 피서철 성수기 배시간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이용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굿인천 굿뉴스

인천지하철2호선 노선 계획 수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수립됐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2호선 노선을 서구 오류동-서구청-가정오거리-주안역-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대공원에 이르는 28.9km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2호선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국비 대상사업 심의에 의뢰기로 했다. 2호선 환승역은 주안역(경인선)과 인천시청역(인천지하철1호선)으로 각각 결정됐다.

문의 _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39

제1회 한·일 항만공항(물류)국장 회의

우리시와 일본 기타큐슈시는 지난 2004년 11월 4일 양시 항만공항(물류)국장간에 체결된 '항만공항물류 및 여객수송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정'에 따라 제1회 항만공항(물류)국장 회의를 지난달 9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기타큐슈시항에서는 인천항-기타큐슈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암벽사용료와 컨테이너터미널의 겐트리 크레인 사용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하는 한편, 기타큐슈항에서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인천항만공사 설립 이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중·일 항만공항물류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하여 인천항, 대련항, 기타큐슈항 등 3개항에서 각각 액션 플랜을 작성하여 3개시 국장이 실시협정을 교환하여 사전 검토 작업을 거친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40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우리시는 지난달 10일 인천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임할 시민과 외국인 등 22명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신규위촉했다. 시민명예외교관들은 앞으로 인천시민대상 외국어 무료강습, 각종 국제행사시 통역 및 안내지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공공장소인 문학경기장, 인천국제공항 등에서의 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3

행정내부 혁신 및 여성복지 분야 '최우수'



'최우수'를 차지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지난 6월초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합동평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우리시가 중앙 단위의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편 민선3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우리시의 공약이행도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29.0%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시는 완료 기준 이행률이 73.3%에 이르렀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64

송암미술관 무상 기증



동양제철화학 송암 이희림 명예회장이 설립한 송암미술관이 우리시로 무상 기증됐다. 지난달 13일에 미술관 야외에서 우리시와 송

암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인계인수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송암미술관내 부동산을 비롯해 소장품과 부속물 일체를 우리시가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기증되는 대상은 남구 학익동 587번지 일대 현 송암미술관 토지 4천402평과 건물 765평이며 소장품 8천437점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2

인터넷망(VOIP)을 통한 국제전화 서비스 실시

우리시가 전자정부 IT839 전략과제 8대 서비스의 하나인 인터넷망(VOIP)을 통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IP 기반 국제전화서비스를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망(VOIP)을 통한 국제전화서비스가 도입되면 50% 정도의 가격으로 국제적인 대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해당 직원들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공공요금 절감 및 업무혁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3014

| 인천시교육청 소식 |

지식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양 수준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지식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식 품앗이 프로그램은 직원 상호간 서로 돕는 학습을 위한 품앗이 활동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이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동료 직원이 수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달중에는 두 명의 직원이 강사로 나서 '개인과 조직을 위한 나의 비전 정립' 등에 관해 강의하게 된다. 교육청은 본청 직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소속 직원도 지식 품앗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히우그란지도술주 주지사와 면담

안상수 시장은 지난 5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 수행을 위해 방한중인 제르마노 히고토(Germano Rigotto) 히우그란지도술주 주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과 히고토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체결한 우호결연 MOU를 토대로 기업인 수출상담회 정례화 추진, 프로축구 친선경기 개최 등 양지역간 경제협력 및 스포츠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2

이제 환경친화형 페인트만 쓰세요



이달부터 수도권내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맞는 환경친화형 페인트만 공급·판매할 수 있다. 우리시는 환경

부에서 페인트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친화형 페인트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집 도색은 환경친화형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민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이 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친화형 페인트에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이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25

공공도서관 매주 월요일 휴관

이달부터 인천시내 8개 공공도서관 모두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순번제로 돌아가던 도서관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로 통일돼 모든 도서관이 이날 휴관하기로 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휴관)이나 특별한 사유로 도서관장이 지정한 날도 휴관할 수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은 주 5일 근무제와 관계 없이 계속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중앙·부평·북구·서구·계양·주안·연수·화도진 등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백만인 에너지절약 실천약속장’ 전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박승숙 의장을 비롯한 29명 시의원 전원과 의회 전 직원이 서명한 에너지절약 실천약속 서명부를 공타광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캠페인의 실천 약속 내용은 여름철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여름철 과도한 냉방을 자제하고 적정온도 26~28℃를 유지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3℃만 높이면 250만kw 발전소 건설을 대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서명부 전달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백만인 서명운동’에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동참함으로써 여름철 에너지 절약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백만인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에 온 시민과 함께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제13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3일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6월 23일까지 11일간 의정활동을 벌였다. 6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으로 이강효·이흥수·이범성·황창배·강석봉·강창규·임화정 의원 등 7인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6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신영은 부의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인 남동공단 내 폐기물소각로 건설반대를, 안병배 의원은 추경예산 중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확정하고,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139회 1차 정례회의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시정질문, 결산(안), 조례 등을 다루게 된다.



대우차판매(주) ‘사랑의 쌀’ 전달

대우차판매(주)(사장 이동호)가 지난달 8일 시청에서 인천시사회복지공동 모금회(회장 정해영)에 사랑의 쌀 5천600Kg(20Kg 280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5천600Kg은 지난 4~5월 동안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차량 1대당 적립된 쌀과 대우차판매(주)의 특별출연금이 모아져 만들어진 사랑의 쌀이다. 사랑의 쌀은 인천지역관내 독거노인, 노숙자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에 배분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3

장애인 농장 ‘해맑음 땀방울 농장’ 개장



장애인들이 도심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며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장애인 농장이 지난달 2일 개장했다. ‘해맑음 땀방울 농장’이라고 명칭을 정한 이곳은 우리시가 지난 4월 남동장애인복지관(대표자 김희자)에 위탁하여 농장을 설치·운영토록 한 곳이다. 이 농장(남동구 수산동 13-1)은 420평 규모의 농지에 6개동의 연동형 비닐하우스와 관리동 하우스를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 등 영농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준비하였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3

주한 외국은행단 투자설명회 개최



우리시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필립 레니엑스 외국은행협회 회장(프랑스 BNP PARIBAS 은행 서울 지점장) 등 46명을 대상으로 ‘주한외국은행단 투자설명회’를 열고 우리시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전국은행협회 소속 8개 시증은행장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의 후속조치사항으로 주한외국은행단 (Foreign Bankers Group)에서 인천의 투자에 대한 큰 관심이 고조되자 우리시를 직접 초청하여 투자설명회와 인천의 개발전략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4

지역전문건설업체 간담회

우리시가 지난 6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시,건설협회, 대형건설사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율, 적정공사비 지급 등 하도급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문의 _ 시 건설기획과 440-3743

School Police Mom 간담회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 대회의실에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위한 학교환경 조성 을 위 해 운 영 중 인 School Police Mom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차장, 생활안전과장,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등 14명과 School Police Mom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3명에 대한 활동사항 사례발표와 순찰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인천지방경찰청 소식 |

공로자 표창 수여



이날 시상식에서 박광현 청장은 훈시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현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5월 24일 경찰청 6층 미추홀에서 관세법 위반사범을 검거한 지방청 수사과 경장 김영상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중구 내년말 월미관광특구 리모델링 완료

내년말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월미관광특구 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실시된다. 중구는 근대문화유산인 중국, 일본, 러시아 건물의 모형을 되살리며 그 기반시설로 각종 선로 지중화, 도로시설 정비, 구일본 18은행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신포동 구간은 이미 도로기반 시설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동구 자원봉사실천 1+운동

지난달 10일 이화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관내 학교장, 사회단체장, 간부공무원 등은 사랑의 이웃집 등 복지시설 6개소에서 '자원봉사실천 1+운동'을 펼쳤다. 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지역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개인 능력의 1%를 나누는 '자원봉사실천 1+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의 _ 동구청 761-0151

남구 구민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

남구는 지역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구민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대학교의 협조로 인천대 제3전산 실습실과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각 실시될 이번 교육은 2개월 동안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기초와 인터넷, 엑셀 등을 교육하게 된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인터넷 중급반, 엑셀 2000반은 컴퓨터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남동구 휴일 약국 전화번호 안내

남동구 약사회가 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문이 닫혀 있는 약국 문이나 서터에 붙어있는 무료 전화번호(080-565-0005)로 연락하면 안내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가장 가까운 근무약국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안내 시간은 휴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다.

문의 _ 남동구보건소 453-2782

부평구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부평 지역에 주민 대상 정보화 능력 배양과 청소년의 문화 콘텐츠 활용공간인 다기능 정보이용센터가 들어선다. 부평구는 자체 예산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통부 산하)의 지원금 등 총 5천 500여만 원을 들여 십정2동사무소 3층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오는 8월 개소할 예정이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계양구 경명로 방음림 조성공사

계양구는 이달 중순까지 병방동 433-4번지 경명로 일대에 방음림 조성공사를 실시한다. 폭 8m, 길이 850m 구간에 해송 등 15종 8천405주의 나무를 심고 694m에 걸쳐 수벽사철나무를 심는 한편, 720m에 달하는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서구가 수도권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 이 같은 지정으로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사 배치가 쉬워지는 등 특구 지정을 통한 외국어 교육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된 서구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완화·외국인의 체류기간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교원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치구가 된다. 구는 관내 57개 초·중·고교 가운데 원어민 교사 배치를 희망한 34개 교(초등 23곳, 중등 4곳, 고교 7곳)에 1억 원씩 총 34억 원을 지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총 22여억 원을 들여 원당동 555 창신초교(부지 2천여 평, 건물 연면적 730평)를 리모델링해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서구청 562-5301

강화군 모기 유인 퇴치기 무료 대여 호응

강화군은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모기 유인 퇴치기(포충기)를 무료 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8가구에 174대를 대여했으며 말라리아 고 위험지역(강화읍,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삼산)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기간은 3년으로 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축사가 넓은 경우에는 추가 대여도 가능하다.

문의 _ 강화군청 934-2183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옹진군은 지난달 3일 백령면 북포리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 면장을 비롯한 지역유관기관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백령도에는 마을회관, 도서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 미흡, 7억5천만 원의 접경지역사업비를 투자해 대지 310평에 다목적회관 연면적 158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관했다.

문의 _ 옹진군청 880-2114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 '비전 21' 개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이 문을 열었다. 신흥보관은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19층과 21층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모형 전시물, 전망대, 정보검색기, 홍보패널 등을 갖추고 지난달 10일 개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IFEZ VISION21)이란 명칭으로 운영될 신흥보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현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전시관으로 19층(80평)에는 접견실·회의실 등이, 21층(150평)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모형 전시물과 전망대, PDA 정보검색기, 멀티미디어 영상관, 각종 홍보 패널 등이 설치돼 있다.

'GM대우 청라테크센터' 본계약 체결



우리시와 GM대우차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R&D시설인 'GM대우 청라테크센터'(Cheong-Na Tech. Center) 건립에 최종 합의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달 14일 GM대우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GM대우 닉 라일리(Nick Reilly) 사장과 만나 시설물 건립을 위한 본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구 원창동 청라경제자유구역내 부지 14만5천여평을 매입해 GM대우에 제공하게 된다. 2006년 상반기중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GM대우는 2007년 중반 자동차 성능시험장을 건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향후 2~3년에 걸쳐 관련 연구 시설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GM대우는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R&D 시설 건립에 약 1천억원을 투자하며 GM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원받았다.

NSC, LG CNS 송도U-라이프 유한회사 설립 양해각서 체결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지난달 15일 송도국제도시 마케팅센터에서 국내 종합 IT서비스회사인 LG CNS와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가칭)'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NSC와 LG CNS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를 올 하반기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는 오는 2014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주거,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 관리해 입주민들 및 입주사들에게 질 높은 삶과 최첨단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도 U-라이프 프로젝트는 통신업체, 장비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등 IT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 내 투자 유치는 물론 다국적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인천과 평양 손잡고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우리시는 민족대회협의회 김영대회장과 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방북을 위해 우리시 준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1차 실무회의를 시작한 이래 금강산, 개성, 남포, 심양시 등을 오가며 10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친 끝에 우리시 대표단을 5월말부터 6월초 사이에 평양에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북한 측이 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마침내 이번 방북이 성사된 것이다.

우리시의 이번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부산·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비공식으로 북한을 찾아간 예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북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랬다.

5월 30일 인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기로 방북 길에 오른 우리시 대표단은 한 시간 남짓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평양도심은 6·15공동선언 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당 창건 60돌, 조국광복 60돌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춤, 가야금, 창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만난 후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인민문화궁전에서 량만길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이튿날 평양시를 둘러보고 남포시로 이동한 일행은 남포항과 서해갑문을 둘러본 후 저녁 10시 30분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서로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회의는 지루하게 늘어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지난달 2일, 북한의 공식초청을 받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대표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돌았다. 우리시 대표단의 짐 가방 속에는 남북이 합의한 6개의 합의사항이 선물상자처럼 다소곳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각계 인사 42명은 지난 해 우리 시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4돌 기념행사의 답방 일환으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공식 초청을 받아 5월 30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례없는 북한의 평양을 공식 방문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챙겨왔다.

삼일 켜 되던 날 묘향산을 둘러본 일행은 다시 밤시 간부터 지루한 협상을 벌였다. 4일째 되던 날에도 북한 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지루하게 호텔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과 면담이 잡혀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에야 다시 협상이 시작되어 극적으로 오후 1시 20분 안상수 시장과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간에 6개 조항의 합의안이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인천시와 평양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이미 아시안게임 국내유치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이제 인천과 평양 두 도시는 내년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벌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 9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열리는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한 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포함한 대표단을 보낸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경제와 축구를 비롯한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도 함께다.

이밖에도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 축구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과 개성공단의 개발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화 철산리와 개풍군 지역을 잇는 길이 1.8km의 연륙교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구두 합의도 도출해 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도로보수,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우리시가 지원하고 인천과 평양간 방문사업 추진을 검토하자는 약속도 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외에도 우리시의 이번 방북 성과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남북 정부가 주도해온 상호교류와 협력의 틀이 남북 도시 간 교류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당사국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이루어낸 남북 민간 교류협력의 성과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의 청신호라 할 수 있어 더욱 반가운 것이다.

(자료제공 : 시 정책기획관실 남북교류지원팀)

| 합의서 내용 |

1.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 남측과 북측은 2014년 아시아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북측의 체육시설, 호텔, 도로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한다.
3. 북측은 2005년 9월 1일~4일 사이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 응원단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보낸다.
4. 쌍방은 경제, 축구를 비롯한 체육,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5. 쌍방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일본의 재침야망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
6.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계속 협의해 나간다.



1 만경대 소년궁전에서 북한어린이들의 '예술' 특기교육 관람 2 평양의 개성문 앞에서 3 200여명의 어린이 예술단 공연

추억의 Boney M 인천공연



7,80년대 전 세계를 평정한 디스코 열풍의 주역 보니 엠(Boney M)은 전 세계적으로 8,0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를 기록하며 자 메이칸 디스코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3세계 음악의 전도사이다. 디스코는 3040세대의 젊음이며, 추억이며, 열정이다. 오랜 공백기간을 지내고 BMG에서 <20th Century Hits>라는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며 2000년대 초반 활동을 재개한 이들은 2001년 내한 공연을 가져 국내 팬들의 환호를 얻으며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내한 공연은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보컬인 리즈 마첼이 참여하여 국내 팬들 뿐 아니라 공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추억의 대형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디스코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일시 _ 7월 15일(금) 오후 8시
장소 _ 인천시립체육관 (송의종합경기장 내)
티켓 _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_ 미추홀 아트센터 (512-3827)
 인천에듀투어공사 (435-7100)

신선한 콘서트 2005

오! 부라더스 & 타카피



오! 부라더스

부평문화사랑방의 '신선한 콘서트 2005'는 다양하고 신선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며 문화의 중심에 서야 할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문화소외 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이다. 시원한 락앤롤 음악을 연주하는 <오! 부라더스>와 유쾌한 펑크 락 밴드 <타카피>가 무대에 선다. 결성 10년을 앞두고 있는 두 팀 모두 독특하고 확고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갖고 있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내뿜는 기운은 확연히 구별된다.

일시 _
 <오! 부라더스> 7월 9일(토) 오후 7시
 <타카피> 7월 23일(토)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무료 (전화예약 / 선착순입장 / 10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_ 505-5995



타카피

시립교향악단 제262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브람스의 음악여행



별 쏟아지는 한 여름밤에 브람스의 음악세계에 빠져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태국 출신의 객원

지휘자 번디트 운그랑세 지휘와 첼리스트 강승민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하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 .129',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된다.

일시 _ 7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 7,000원 / 5,000원
문의 _ 420-2781

패티김 이미자 조영남 빅3 인천 콘서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열광시키는 노래가 있다.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4월이 가면, 서 울찬가, 딜라일라. 화계장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의 만남 빅3. 한국 가요계의 초석이자 한국가요를 이끌어온 3인의 거목 패티김, 이미자, 조영남이 그들의 노래인생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마련한다. 세월과 세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그들의 노래가 불려진다.

일시 _ 7월 9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99,000원 / 2층(S석) 일반 77,000원
문의 _ 1566-6551

샌드애니메이션 무암이와 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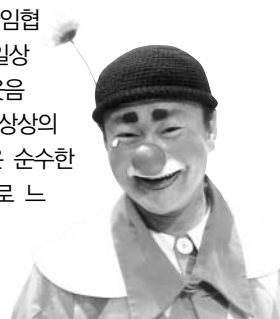
무암이는 바람섬에 사는 돌멩이다. 어느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초가집과 자기를 닮은 돌담들, 꽃과 나비... 그의 눈에는 세상 온갖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무암이는 친구가 된 꽃과 나비와 어울려 논다. 어느날 세찬 바람이 불어와 친구들을 모두 데려가 버린다. 심심해진 무암이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다시 친구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일시 _ 7월 3일(월) ~ 24일(일)
 평일 오후 7시 / 주말 · 공휴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 / 어린이 7,000원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극단마임 제85회 정기공연 일상의 것들

<일상의 것들>은 극단마임 및 클라운마임협회의 실험적 · 창조적인 작품으로 일상의 모습을 클라운마임 만의 감동과 웃음이 있는 언어로 보여준다. 사랑, 꿈, 상상의 세계 등의 이야기를 아이의 눈과 같은 순수한 시선과 상상의 세계로 인생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이다. <사다리> <슬랩스틱> <의자와 광대> <꽃을 가진 소녀> <공원에서> <청소부> <광대> 등의 파트별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일시 _ 7월 9일(토) ~ 12일(화) 평일 · 일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장소 _ 수봉문화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예매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예매 및 문의 _ 772-7361 / www.clownmime.co.kr

어린이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요즘 어린이들은 부모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시 하여 잘잘못을 알지 못한다. 이 공연은 피노키오처럼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마음속

에 공연내용이 오래도록 기억돼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공간을 다시 찾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장으로 남을 것이다.

일시 및 장소 _
 서구문화회관 : 7월 15일(금)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7월 16일(토) 오전 10시 40분 / 오후 2시, 4시
 여성의 광장(동춘동) : 7월 17일(일) 오후 2시, 4시
 7월 18(월)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 오후 4시
티켓 _ 일반 12,000원 / 할인 8,000원 / 단체 5,000원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774-0014)

청주시립무용단 초청공연 춤 · 直指

춤 · 直指(직지)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의 독창성을 살려 우리춤과 접목시킨 작품이다. 우



리 춤사위에 현대적인 몸짓, 다양한 극장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가장 지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잠재성을 최대한 살린 작품이다. 박재희 40년 무용 인생의 모든 혼을 담아 만든 아심작으로 문화관광부 주최 2005 예술마켓에서 선정한 우수 작품이다.

일시 _ 7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420-2020~2

수형회 수채화 전시
 1일~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제 8회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작품전
 1일~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8회 바다그리기 전시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예고 제3회 인.예.전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반전평화미술작품전시회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이종구특별초대전
 15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 · 소 · 미추홀전시실



땅의 정신
이종구

별 쏟아지는 밤... 문화 향기에 취하다

종합문화예술회관 7월 금요일예술무대 야외공연

발레 7월의 여행

1985년 창단해 국제 창작무용 특별상을 수상한 권희선의 안 무 작품 <발레 콘서트>는 로맨틱 발레만이 지니는 우아한 분위기 에 다소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김경영 안무의 <16>은 삶의 소 품인 의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승희 안무의 <캐모마일 향기>는 인간의 욕망과 덧없음을 표현한 창작 작품이다.

일시 _ 7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주관** _ 뫼오로시 발레단 **출연** _ 안무·예술감독 황규자 외 , 한승희 외



뮤직 퍼포먼스 벨라트릭스

클래식 기존의 틀을 깨고 보여주는 여성 전자 4중주단은 대중성과 열정으로 Summer Storm, Libertago, Adagio, Canon, Bolero, Eine Kleine Nachtmusik, Can-Can, 비 발디의 사계 등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는 무대를 연출한다.

일시 _ 7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주관** _ 여성전자 현악4중주단 <벨라트릭스>
출연 _ 진행 김영대 외 여성 연주자 4인

살사 댄스페스티벌

열정적인 춤의 향연으로 정통의 살사댄스와 변형된 창작무(살사, 펑키, 재즈를 가미한 라인댄스)를 선보이며 하쇼하 댈리댄스가 이국적인 춤의 향연을 연출한다.

일시 _ 7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주관** _ 뱌부 살사
출연 _ 살사/김형무 외이재천 등 30여명 (특별출연 하쇼하 댈리댄스)



디애플스와 함께 하는 비틀즈 콘서트

비틀즈 카피밴드 <The Apples>를 통해 비틀즈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비틀즈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몸짓, 악기, 복장까지 똑같은 비틀즈 카피밴드가 방송인이자 정신과 의사 표진인 박사의 진행으로 Hey Jude, Yesterday, Let it Be, I Will, Get back, I want to hold your hand 등을 들려준다.

일시 _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주관** _ 비틀즈 카피밴드 <디애플스>
출연 _ 표진인 박사(정신과 의사, 방송인) 외

열정의 아프리카 라 봄바

감미로움과 부드러움, 열정과 리드미컬한 리듬의 아프리카흑인음악 Vuelve conmigo, Pudeseryo, Balserito, Esmeraldes, Camaleon, Ritmo bomb, regag, Bomba loca, Me gusta que, Te hare, feliz, Enamorado 등을 색다르고 다양한 연주로 들려준다.

일시 _ 7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주관** _ 안데스 매니아 **출연** _ 진행 김세라 외 <마라부>단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1	12	13	14	15	16	17
극단마임<일상의 것들> 오후 7시30분 수원문화관소극장 1만, 5천 772-7361	경식학생 토크 열린 음악회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 1만 453-2351 극단마임<일상의 것들> 오후 7시30분 수원문화관소극장 1만, 5천 772-7361	생존발극민예총 연극위원회)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 1만 765-9756	생존발극민예총 연극위원회)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 1만 765-9756	보니엠 내한공연 오후 8시 / 인천시립체육관 7만, 5만, 3만 / 512-3827 생존발극(민예총 연극위원회) 오후 7시30분 / 중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5천, 1만 / 765-9756 실사 댄스페스티벌 오후 7시30분 / 중원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 / 420-2716~7	Big 3 콘서트 오후 3시·7시 /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 연장 / 9만9천, 7만7천 / 1544-2498 가족뮤지컬<백조왕자> 오후 2시·4시 / 031-827-5533 극단마임<일상의 것들> 오후 7시30분 수원문화관소극장 1만, 5천 / 772-7361	가족뮤지컬<백조왕자> 오후 3시·7시 /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 연장 / 9만9천, 7만7천 / 1544-2498 가족뮤지컬<백조왕자> 오후 2시·4시 / 031-827-5533 극단마임<일상의 것들> 오후 7시30분 수원문화관소극장 1만, 5천 772-7361
4	6	7	8	9	10	3
		시립교향악단 제262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7천, 5천 420-2716~7 여성주간기념<멜로디속노래와 춤> 오후 7시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420-2784	뮤지컬퍼포먼스 <벨라트릭스> 오후 7시30분 / 인천시립체육관 중원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제96회 연수금요예술무대 <살사와 합디스의 만남> 오후 7시30분 연수구청 대강당 810-7087	중·고등학교 합창 및 중창 콩쿨대회 1부 오전 10시 2부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 019-465-8335 가족뮤지컬 <라이온킹> 오후 2시·4시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 02-996-0230	가족뮤지컬<백조왕자> 오후 3시·7시 /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 연장 / 9만9천, 7만7천 / 1544-2498 가족뮤지컬<백조왕자> 오후 2시·4시 / 031-827-5533 극단마임<일상의 것들> 오후 7시30분 수원문화관소극장 1만, 5천 / 772-7361	무악기와 성악이제! (~24) 주말·공휴일 오후 3시·6시 평일 오후 7시 화산소극장 1만, 8천, 7천 866-3993 가족뮤지컬 <라이온킹> 오후 11시, 오후 2시·4시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 02-996-0230
18	19	20	21	22	23	24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전 10시20분·11시20분 오후 4시 여성회관정(동충동) 1만2천, 8천, 5천 572-4281	대한민국청소년인권현악축제 팬하탄 유스 오케스트라 오후 7시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011-773-5162	대한민국청소년인권현악축제 부산아교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오후 7시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011-773-5162	대한민국청소년인권현악제 대전부청소년합비오케스트라 오후 7시 /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 011-773-5162 강국진국립합창공연 <87년대합창발표회> 오후 6시 / 중원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 7천 / 811-0550 제97회 연수금요예술무대 (여민아트 센터문시트) 오후 7시30분 / 연수구청 대강당 810-7087	대한민국청소년인권현악제 전북도립어린이교향악단 오후 7시 중원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 011-773-5162 재능대 뽀머제즈 페스티벌 오후 7시 중원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 890-7290~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후 2시, 4시 여성회관정(동충동) 1만2천, 8천, 5천 572-428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오후 2시, 4시 여성회관정(동충동) 1만2천, 8천, 5천 572-4281
7월 24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하반기 무대점검기간	26			29	30	31
				열정의 아프리카 <라이온바> 오후 7시30분 중원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무료 420-2716~7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견습사원, 기업을 배운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현장체험단을 꾸렸다. 경제통상국 소속 팀장 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6월말까지 10개의 지역 중소기업체를 돌며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온몸’으로 체험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체험기간은 3일. 이기간 동안 서로의 업무진행과 처리방식을 관찰하고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기업이 힘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관리감독관청과 피관리자, 도움을 주는 주체와 받는 주체라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다르게 보고자 한다.’는 생각이 중소기업현장체험단의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시 경제정책과 김승희 팀장과 기업지원과 김동현 팀장이 귀를 쫓긋 세운 체 회사 관계자의 조달 업무 개요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산업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3일 일정으로 한국후지제록스 인천공장을 찾았다. 이틀째인 오늘은 조달 업무에 대한 체험과 생산준비 상황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야기 도중 김승희 팀장이 조달업무시 행정관청과의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질문한다. 그리고 답변이 이어진다. 실무자와의 미팅과 현장학습은 자연스레 일이 되고, 안되는 부분과 무엇이 어렵고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교환의 기회로 이어진다. 이어 이들은 부품창고와 조립라인에 투입, 생산과정에 따라 낱알의 부품이 어떻게 한대의 복사기로 탄생하는지 눈과 손으로 확인했다. 이날만큼은 평상시의 말쑥한 정장차림과 권위를 벗어 던지고 작업복 차림의 견습사원이 되었다.



“현재 인천은 산업 공동화와 제조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승희 팀장은 말한다. 중소기업체, 특히 제조업 분야 활성화가 무엇보다 긴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현장 근무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이해하고 싶었다.”면서 “당장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의 어려움과 행정기관에 대한 기본 정서를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꾸리기는 했지만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 하청과 납품에 따른 대기업과의 관계 등 파악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한국후지제록스 인천공장이다.

체험단 방문을 받아들인 기업입장에서도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상호이해’라는 취지에 공감했기에 이들의 활약이 부담만은 아니었다.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실무자급이었다면 이번 체험은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후지제록스 사업추진부 이상근 팀장의 솔직한 말이다. 그는 “기업관련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동안 기업으로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업무추진과 관계설정에 있어 서로에게 생산적인 바탕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기업지원과 김동현 팀장은 “자금, 기술, 인력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기업 애로사항은 금방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무원이 기업활동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아쉬움도 남는다. 당초 체험단은 생산라인에 투입돼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잠시나마 동고동락했다. 하지만 업무파악이나 공정상의 이유로 현황설명을 듣고 견학하는 정도에 만족해야했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운영결과를 취합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한 국 후 지 제 록 스

독특한 기업경영 성공한 지역 밀착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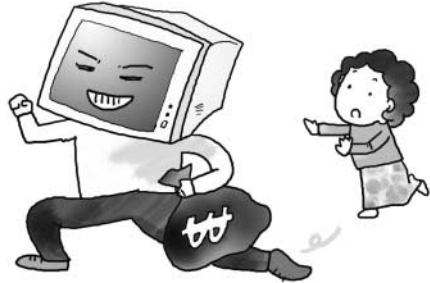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인천공장(서구 가좌동 540-2)은 700여명이 근무하는 기업체로 서울에 본사가 있고 100% 외국 자본 기업이다. 복사기, 디지털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팩시밀리, 프로젝터는 물론 문서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Document Solution이 회사의 제품이다. 기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인천공장은 3년전에 비해 2.5배 매출신장을 이뤄냈고 지속적 투자와 공격 경영으로 채용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외국기업이지만 지역밀착기업으로서 그동안 고용창출 등 다양한 방편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독특한 기업경영과 환경마인드를 보여주는 예 하나. 외부 손님이 이곳을 찾을 경우 화려한 내부시설이나 규모로 기선을 제압하기에 앞서 공장 뒤편으로 안내된다. 그곳에서는 6명의 직원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을 것이다. 쓰레기 재활용율이 90%라고 한다.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만 버릴 뿐이다.



눈뜬 당신 코 베일수도...

지난 6월 9일 오후부터 남동구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인 ‘리치투유(rich2you.com)’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확인을 위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이미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사업자는 도주한 상태였다.



이 업체는 지난 3월에 남동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격을 홍보하고 에어컨, 소형가전제품, 분유 등을 판매했는데, 공동구매로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며 3달 동안 미리 대금을 받고 6월 10일에 일괄 배송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는 하루 전에 대금을 챙겨 도주한 것이다.

정확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6월 20일 현재 2천명 이상의 피해자와 7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건 이후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가맹점 관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매출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그나마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생겼으나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별다른 피해구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무점포, 비대면, 선지급 후배송 거래의 특성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조건 형성이 미흡해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기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6월부터 에스크로우제도(대금결제 예치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제3자에게 입금한 후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어 이 기간동안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자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1. 해당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회사 관련 정보가 빈약한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주소지의 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유무 및 등록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실적이 별로 없는데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현금거래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2.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 주문 결과와 계약정보를 출력, 저장해 두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3. 대금지급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하는 것이 문제 발생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4. 제품 주문시 배송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하고, 배달된 제품은 되도록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제때 상품이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매 취소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세계 모든 국가에 손을 내미세요”



청소년웹진 MOO와 잦은 교류를 갖고 있었던 미국대사관의 ‘마크 민턴 대리 대사’님과 인터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대사관 공보관실로 대리 대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곳은 미국과 한국 시민들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턴 대리 대사님께서 오시기 전 저희들은 공보관실에 계신 몇 외교관 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영어로 얘기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사님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대리 대사로 있는 마크 민턴입니다. 지금은 전 대사님과 또 새 대사님이 부임하시기 전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원래는 부대사직을 맡고 있지만, 대사직이 공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리 대사로서 대사관 전체를 제가 총괄해서 감독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한·미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과 교환학생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구요. 루센트 장학금이라고 해서 한국의 공대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루센트 테크놀로지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풀브라이트에서는 학생들의 교류를 연결시켜 줍니다. 미국 내의 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학생이 교류를 하면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 찾아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장학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리 대사님께서 특히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한·미간의 외교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교관으로서 현재는 대리 대사로서 수년간 일해오고 계신 대리 대사님은 오늘날 대사관의 역할은 정부와 타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며 정보통신강국인 한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리 대사님은 한미간의 외교문제를 깊게 생각하시며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신데, 동시에 주말에는 한국의 멋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하시는 등 멋진 취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래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더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열심히 활약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고 하셨습니다.

대리 대사님께서 떠나신 후 저희들은 대사관 견학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로 같은 공보관실 곳곳에는 업무에 열중이신 외교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인사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여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마크 민턴 대리 대사님 인터뷰도 매우 큰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두 배나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모두들 지친 기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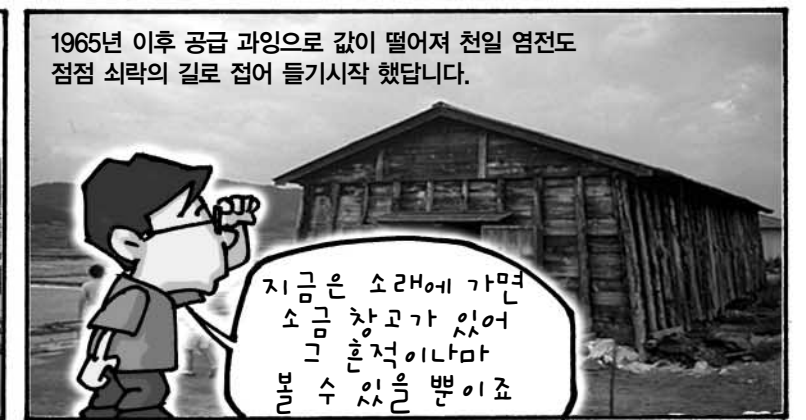
‘See you Later’ 다시 만나자는 정겨운 인사말을 뒤로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한미국대사관 방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행사를 가능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의 가브리엘 프라이스(지역총괄 부담당관)님, 김대영(전문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글 _ 이수진 (석정여고 2학년 청소년웹진 MOO 제5기 학생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시도된 곳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시범 단지 조성이 첫 걸음



글 _ 홍명호
(건설교통부 서기관
알기쉬운 신물류법령 저자)

국제교역량 증가, 소량 다품종의 적기 수송 경향 등 급변하는 국내외 물류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물류분야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이며 그 결과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도시 중심 교통네트워크에 맞는 집배송단지와 화물터미널의 부족, 도심 내 유통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책 미흡, 물류업체의 영세성, 공동 유통단지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인천공항, 인천항만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같은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단지와 수송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2002년 인천지역 15만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67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진입도로 공사비의 50%와 토지매입비의 30%(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하며 지역별로 유통단지를 임항형, 내륙대도시지원형, 공단지원형, 중소도시지원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필자는 인천시가 시 외곽지역에 소비(내륙대도시지원형), 생산(공단지원형), 공항(임항형) 중심의 유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범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시장, 창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외곽 이전과 집단지화 등 전반적인 도시 물류체계 개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 도심 교통 혼잡 해소,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의 계획 등에 힘입어 인천시도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시내에 13개의 유통단지(567만평)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야심찬 계획을 지난해 수립한 바 있다. 광저우, 텐진 등 중국 대도시들과의 물류 중심도시 건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천리 길도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첫 걸음을 잘 떼야 목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단지 조성 성공이 다른 물류단지들의 방향 설정과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범단지를 공영 방식으로 개발하되 이 단지의 성공 여부가 인천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느냐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부평도호부청사와 학생들이 일하는 모습
(1920년경, 계양구 제공)

도호부는 요즘의 시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인천에는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가 있었다. 부평도호부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일대를 관할했다. 부평도호부에는 부사를 비롯해 좌수, 별감, 군관, 장교, 아전 등 160명이 넘는 관원이 있었다. 도호부청사는 중심업무를 보던 동헌을 위시해 관리나 사신이 묵던 숙박시설인 객사, 그리고 동·서헌, 사령청, 포도청, 군기고 등 여러 채의 건물로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계양구 계산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도호부는 현재 동헌(東軒) 혹은 현감의 살림채였던 내아(內衙)로 보이는 건물 1개동만이 존재한다. 구한말까지 그런대로 그 모습을 유지해 오던 부평도호부청사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청사의 이전 등으로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고 말았다. 이제는 멀리 보이는 계양산의 자태만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다.



부평초등학교에서 바라본 부평도호부청사와 계양산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



바다를 향해 외치는 에로티즘의 주술 조각가 이일호 씨

원초적 본능! 리비도의 마당! 이진 좀 전에 시도(矢島) 물가에서 마음을 젖게 하던 ‘폴 하우스’의 달콤한 상념이 아니다. ‘비’라는 친구, 그리고 작고 귀여운 여자 송혜교, 우아함, 로맨틱, 어찌구는 전혀 아니다. 올 때 귀뽀미 있었지만 조각가는 우리와 영 다른 상상력을 가졌다. 여기는, 이 금요일 오후의 낮설고 무더운, ‘모도(茅島)와 이일호(李一浩)’라고 새겨진 이 배미꾸미 조각 공원은, 얼른 보면 변태적 환상과 무의식의 세계 같은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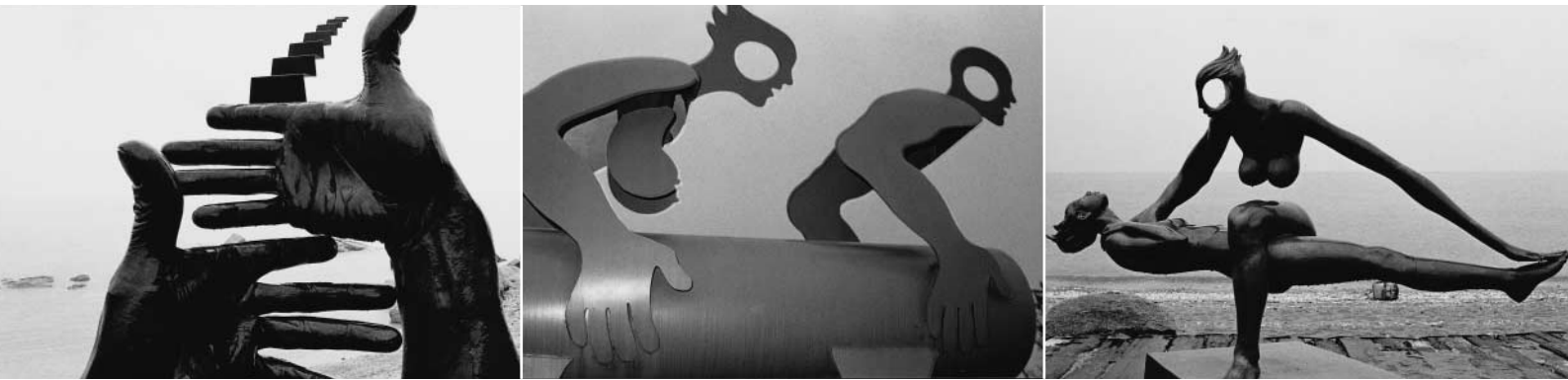
구멍 뚫린 양철 남녀가 함께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는 카페 들창은 저물어 가고, 못 건디는 물결은 옛날처럼 모래톱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저들은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나. 정말 악몽인가, 자유인가, 바다를 향해 외치는 인간 내면의 비명 소리인가. 흐린 금요일 늦은 오후, 눅눅하게 몸을 감는 습기와 무섭고 흥측한 조형들이 늘어선 이 초현실의 무대.

여기저기 타조인지 공룡인지 모를 그런 억센 발톱을 한 징그러운 여인이 치부를 드러낸 채 괴롭게 물구나무서듯 몸을 꺾고 있고, 짐승도 사람도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똑같이 통으로 꿰뚫린 채 하나의 서클을 이루고 있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뒤’가 켜기는 윤회(輪廻)도 있고, 해골과 뺨을 비비는 편안한 남자의 얼굴과 벗은 여인의 엉덩이에 올라앉은 한밤의 올빼미도 있다. 이것들이 이일호 씨가 ‘에로티즘은 쾌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 억압에서 인간 해방’을 꿈꾸는 상상이고 자유이고 영토이다.

그렇다면 왜 모도에? 왜 이 모래사장에? 그러나 같이 간 일행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용혹무괴(容惑無怪)를 말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또 다른 대학의 교수도 가끔 바다와 함께 이 조각 공원 안의 ‘죽음’과 인간 해방의 ‘에로’를 주술에 걸린 듯 매우 가상하게 감상한다. 하지만 이쪽의 짧은 머리는 고작해야 ‘바닷가 모래밭은 인간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니까...’ 정도에서 멈춘다. 그런데, 이 초현실 조각가 이일호 씨는 왜 여태 안 오는가.

무언가 이 공원 주변에 말썽이 생겼는지, 그래서 쉼이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털 부숭이 남자가 부산스럽게 뒤 산언덕을 오르내리다가, 한참 만에 마지못한 걸음으로 다가온다. 그가 바로 카페 여인이 말하던 이 조각 공원의 주인, 원시 군주 이일호 교수.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막 소주 병의 뚜껑을 열려는데 그가 앞에 와 앉는다.





“난, 뭐, 여기가 점점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싫고, 또 오면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똑똑 끊어지는 늘변. 그래서 늦었다는 의미이지만 초대면 인사도 다정하게 나눌 줄 모른다.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 듯하다. 행동, 말투 어느 것 하나도 다 똑똑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목구비는 아주 두렷하고 수려하다. 남자로서는 매우 깊고 진하게 잡힌 쌍꺼풀과 큰 눈, 안광, 콧날, 그리고 수염투성이만 아니라면 훨씬하게 드러날 프로필. 지금 이순(耳順)의 나이인데도 그 젊은 날 현현(軒軒)했을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소주를 한 잔 권한다.

비로소 그가 이쪽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향을 말한다. 충남 보령! 아, 얼마 전에 이쪽이 보령 근방을 다녀왔다는 말을 한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무창포. 모 문학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물이 썩 그믐밤, 칠흑의 개펄에 길게 촛불을 밝히고 담소하던 기억을 떠올려 그에게 전해 준다.

그래서 이제 조금 허물이 없어진 것일까. 학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쪽과 비슷한 시절에 학교를 다녔으며, 삼십 중반 무렵이 되어서부터 미전에 입선을 했거나, 그러다가 마침내 1983년 중앙일보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타 일약 유명해졌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띄엄띄엄 꺼내 놓는다. 요즘 하는 일은? 이렇게 묻자 지금은 거의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서울의 한 여자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 무렵 함께 홍익대학에 다니던, 인천 출신, 조각하는 사람들도 몇 기억나는데…”

시내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여류 조각가, 지금은 도자기에 빠져 버린 고교 동창 최 모 군, 자유공원 밑의 허 백 씨, 그리고 후배 김 모 군 등을 그가 입에 올린다. 이것도 그를 조금 편안하게 했는지 모른다. 수줍은 듯한, 그러면서도 밝은 웃음의 파문이 눌러 쓴 모자 밑으로 퍼진다.

문지를 앓으면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에 빠져드는 조각가. 늘 혼자서 석고를 주무르고, 대리석을 쪼고, 쇠를 자르고 깎고 하는 습관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옆얼굴을 훑쳐본다. 그의 시선은 바다에 가 있다. 고즈넉하게 앉은 모습이 펍 순박해 보이기도 한다.

이 사람은 정말 괴짜일 수도 있고, 괴팍일 수도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은 땅 위에 닿았고 하늘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포개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진짜 사랑의 철학자일지 모른다. ‘사랑할 때 우리는 중력을 잃는다’라고 시적인 설명을 단 청동 조각 「뫼달아라 뫼달아라 뫼달아라」처럼 정말 사랑 없이는 ‘이카루스’의 날개에 불과할지도….

그것을 ‘양성(兩性)의 변형된 누드 조각, 둘이 하나가 된 남녀의 성애(性愛) 형상, 풍경과 인체의 복합 구조나 추상 형태로 표현’ 해 내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이면서, 인간 자유 의지의 외침이면서, 해골이 상징하는 무슨 죽음의 주술 같은 두려움, 초현실의 환상과 징그러운 파충류의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 내면 어디쯤에 이렇게 사회적 도덕 규범을 뛰어 넘는 변태의 에너지가 솟고 있는 것일까.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외치는 원초적 본능의 목소리가 끓고 있는 것일까.

“참, 제가 막 배로 나가야 해요. 지방엘 가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조각가는 다시 물으로 간다는 것. 마지막 배가 포구를 떠나는 시간은 저녁 7시 10분. 그렇다면 지금쯤은 일어나 배 터로 나가야 할 것이다. 좋아요. 웃음으로 그를 보낸다.

그가 가고 나면 우리는 모래 밭 옆에 지은 방에 남아 참담하게 끌어안고 있는 두 남녀, 고통인지 열정인지 모를 그들의 자세와 육신의 굴곡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오늘 밤 그의 모도에 내릴 빗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가는 빗소리 같은 주술에 걸려 깨지 않는 잠이 들 것이다. 잠 속에서 그의 ‘세상’에서처럼 성애를 나누다가 머리가 새가 되거나, 공룡의 발톱이 돌아나거나, 입에 나팔을 물거나, 가슴이 뚫리거나, 화성인의 모습이 되거나, 한없이, 한없이 공중으로 떠오르거나….

“우연히 여길 잡게 되었는데…, 네, 맘에 들고…, 오뵝하게 내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차에 오르면서 그가 모도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장봉도에서 민박집을 하는 동네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놀러 왔다가 모도가 눈에 들었고 어찌 어찌 해서 이 바닷가 모래 언덕을 손에 넣었고 거기에 자신의 영토, ‘사랑과 죽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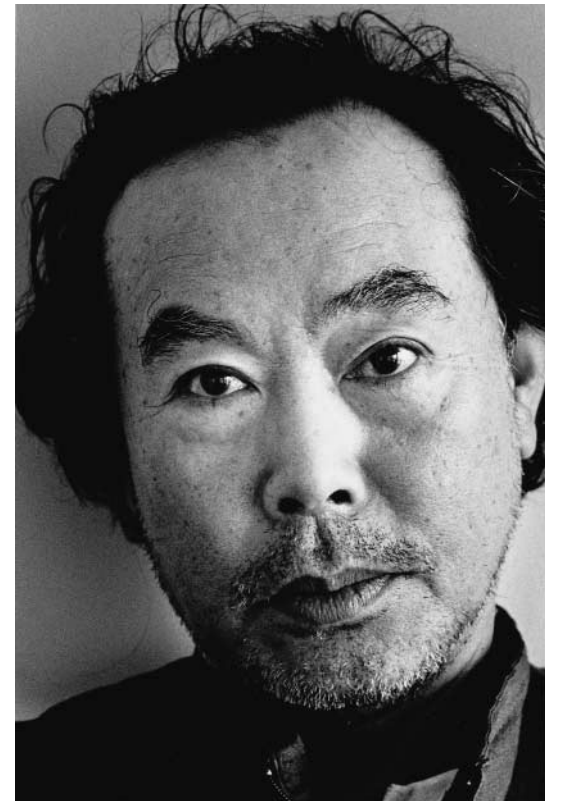
그가 용진군 북도면 모도리 269-2번지에 조각 공원을 꾸며, 이를테면 ‘개장’을 한 것이 2004년 1월 15일. 그는 ‘모도와 이일호’라고 새긴 커다란 돌에 나름대로 이렇게 ‘선언문’을 써 놓았다.

「바다는 모도를 섬으로 고립시킬 생각이 없고, 모도 또한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 와 서 있다.」

말은 이렇게 해도, 그의 풍부한 상상력이 모도를 매우 정직하고 특이한 나라로 만들었다. 인간 본성에 대해 드러내놓고 성찰하게 하는 자유의 나라, 환상의 세계! 그래서 모도는 조금씩 지붕의 ‘띠’를 걷어 내고 있는지 모른다.

글 _ 김 류(시인 · eoeul@hanmail.net / 본명 김윤식) / 사진 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가고싶은 바다

바다. 바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속초가 떠오른다. 열살 때쯤 속초 바닷가에 가서 해수면을 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바다를 처음 보았고 파도도 심했기 때문이다. 오륙 년 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멋진 장관 이었다. 어두한 날씨에 파도치는 소리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모습 은 기억에 또렷이 새겨졌다. 어렸을 때 그곳에 간 뒤로는 바다에 가본 기억이 없다. 요즘 학교문제나 집안문제로 우리가족도 서로 챙겨주지 못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 동해 안쪽 바다를 가본다면 어떨까하는 마음과 바닷가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언젠가 바닷가에 가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 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넓디넓고 많은 생물을 키워내는 바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흐르지 않는 물 같은 사람이 아닌 바다와 같이 넓으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지혁 (부평구 갈산2동)



사랑하는 바다

갈매기는 거침없이 노래 부르고
사랑하는 나의 바다는
고요히 흘러가네

저녁 되면
해는 바다에 입맞추고

사랑하는 바다는
별의 세상으로 빛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네

새벽 되면 희미한 빛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또 한번 뛰게 하는 바다

이재성 (만수북초등학교 5)

바다야 고맙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며, 망상이며 바다 좋기로
유명한 곳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기말고사를 엉망으로 본 후, 갑자기
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안목으로 바람 쐬러 갈까?”
“오호, 좋제!” 이렇게 해서 맘 맞는 친구들 셋이서 안목으로 출
발했습니다.

가는 버스 안에서는 시험걱정에 다들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버
스에서 내린 후 멀리서 들리는 갈매기 소리와 짹짹한 바다냄
새에 우리는 금방 미소를 띠었지요. 우리는 바다까지 힘껏 달렸
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아~~좋아”

우린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났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진도 찍고,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았
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친구 한 명이 모래사장에 글을 썼습니다.
‘사랑한다. 친구들아!’

그렇게 바다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시험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
이 확 풀렸습니다.

‘바다야, 고맙다.’

이미현 (서구 가좌3동)

강건우 (연수구 연수동)

무의도에서 담은 바다의 기억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1972년도로 기억된다. 방학을 맞아
도 마땅히 휴가라는 걸 떠난 기억이 없는 우리 남매는 ‘바다’ 하
면 그저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여지는 넘실대는 파도를 떠올리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다. 경찰공
무원이신 아버지께서 포상휴가를 받아서 앞집 경택이네와 같이
무의도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는 갈 수 없는 상
황이라 같이 가는 경택이네 어머니에게 우리들을 부탁하셨다.
엄마의 걱정스런 눈빛을 뒤로하고 우리 남매는 신나는 여행길에
올랐다. 연안부두에 처음으로 배도 탔다. 1시간30분을 달려 섬
에 도착했다.

어느 자연풀장이 달린 민박집에 우리는 짐을 풀었다. 밤에는 처
음 보는 도깨비불에 놀라던 일, 썰물 때 가까운 갯벌로 나가 소
라 줍던 일이 떠오른다. 하루는 산을 두개 넘어 모두 조개를 잡
으러 갔다. 물이 빠져버린 갯벌에서 손으로 굴기만 해도 조개가
너무 많이 나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잡았다. 조개를 민박
집까지 가져가려고 하다 산하나 넘고 1포대 버리고 산 하나 넘
고 나머지 포대도 버리고 반포대만 가져와 맛있게 조개요리를
해먹었다.

그때 무의도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로 사진도 한 장 찍었는
데, 그 사진 또한 나의 첫 여름바다 사진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있다.

바닷가의 소중한 기억

몇년 전 여름,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가던 날이 생각난
다.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1993년 7월 중순이었던 것으
로 기억한다.

아빠의 차를 타고 한참을 가던 끝에 내린 곳은 동막해수욕장. 사
람이 무척이나 많았다. 아빠와 형은 텐트를 치고, 엄마와 누나는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와 나는 어딘지 모를 슈퍼를 찾아 다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이었을까? 답기는 무척 덥고 짜증은 짜증
대로 나는데, 슈퍼에 들렀다 나온 사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디로 가야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
나마 혼자가 아닌게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길 눈이 어두우신 할
머니와 함께라니….

이리저리 찾아 헤매었다.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한 손에는 쭉쭉
바를 물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버린 내 모습이란
지금도 상상하기 싫다. 할머니는 나를 달래준다면 어부바를 해주
셨고,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다 경찰아저씨를 만나 저녁이 다 되어
겨우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로 돌아가긴 정말 싫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마지막 휴가를 떠났던 곳이 동막해수욕장이었고, 할
머니와 마지막 추억을 남긴 곳도 그곳이라 자꾸 돌아가고 싶어
진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할머니의 얼굴 빛조차 흐릿하지만 난
그날을 기억한다. ‘할머니 또한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며 내가 기
억하는 그날을 회상하시겠지.’

오늘따라 바다가 그림고, 할머니가 자꾸 그리워진다.

윤남혁 (중구 향동)

바닷가에서 즐긴 달밤에 체조

고등학교시절 친구들과 숙소를 빠져나와 바다에서 밤새도록 뛰
어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께 들키면 달밤에 체조하듯
기합을 받고 혼날줄 알면서도 미친 듯 뛰며 소리지르고 놀던 모
습이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소풍이 정해지고 며칠동안 무엇을 할지 생각해온 터라 소풍가서
는 할일도 할말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또한 늦은 밤 자유시간에
취해있었습니다. 어찌나 재밌게 놀았는지 저는 다쳤는지도 몰랐
습니다. 상처는 깨끗이 나았지만 아직도 욱씬거리는 것같아 그
냥 웃음만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영광의 상처를 나눈 채 숙
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문은 모두 잠겨있고 창문은 여름이라 방충망이 돼 있었습
니다. 우린 약속을 한 듯 제자리에 앉아 한숨만 쉬고 앞으로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막막해져 있었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선생님 눈에 발견돼 장날에 개 끌려 가듯 질질 끌려가 우
리가 예상하던 달밤에 체조를 마음껏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지... 별 받으
면서도 마냥 웃기만 했던 우리들.

내 고등학교 때 가장 소중한 추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해봅니다.

김상진 (부평구 부평1동)

새벽바다

어둠은 걷히고
태양은 잉태되듯
바다위로 솟아오른다.

용광로인지
불바다인지

나의 모습은
그
붉은 빛으로
온통 물들어 버렸다.

태양은
해엄치고
그바다에
내가 눕고

지난밤
성난파도
가센 비바람도

아침으로 가는
길목에선
모두 잠들어 버렸다.

고요하다
자연이 연출해 낸
멋진 드라마에
내가 도취되고
침묵으로 연기하고

넓은 공간에
바다와 나
우리는 그저
하나이고저 했다.

얼마만큼
지났을까
나의 맥박이 빨라지고
바다의 호흡소리
커질때

우리는
헤어져야만 했다.

새벽이
우리를 버리고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영숙 (계양구 작전동)

다음달 테마는 여름 방학

다음달 테마는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과 관련된 글(200자 원고지 3매)과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
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
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
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설치미술

철 지난 가을 덥적도 서포리 바닷가에 있는 시설물의 잔해입니다. 아마도 대형텐트의 구조물이었나 봅니다. 마치 해변가의 설치미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김봉순 (연수구 연수동)



추워 추워 우리 아들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친척집이 있는 부산에 낚시하러 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네요. **권기숙** (부평구 삼산동)



준비? 작년 초겨울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여보, 사랑해요. **김용태** (부평구 부개동)



무의도에서

얼마전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무의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네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평일이라 사람도 별로 없어서 오랜만에 폭~쉬었습니다.
김운경 (부평구 삼산동)



고성(古城)

바닷가의 수도시설이 모래에 박힌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독일군의 나바론 요새의 미니 어처 같이 사진 한 장 찰칵!
김진명 (남동구 간석동)



무너질라 조~심~조~심

몇 년전, 여름휴가 떠났던 동해바다에서 찰칵~. 모래찜질, 수영, 두꺼비집 만들기... 귀하고 예쁜 추억을 가슴에 꼭 담아 왔답니다. 유난히도 덥다는 올 여름, 시원한 바다와 추억 속에 한번 빠져봅시다~.
신동철 (남동구 만수동)



이런 날이 있었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의 한가로운 하루를 맞은 날. 바로 엇그제 같은데 일년이나 지났더니. 그래도 이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 일에 최고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애들아, 화이팅이다!"
오영미 (남구 학익1동)



멋쩍은 포즈

지난여름 휴가 때입니다. 사촌 조카들끼리 손을 잡고 한껏 온 식구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사진은 온통 이 두 아이 사진뿐이더라고요.
이기수 (부평구 부평2동)

아~ 개운해

여름 휴가때 모래찜질 하는 사람들을 보며 남편과 아들이 막무가내로 목까지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해보신분들 아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갑갑함. 모래를 치우자 너무 가볍고 활기분해져서 기분이 좋아 활짝 웃었습니다.
손기정 (계양구 작전동)

info box

쌍쌍썰매장에서 물썰매 타세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송춘규)의 서구사계절물썰매장, 야외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구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은 물과 숲이 한데 어우러진

도심속 자연공간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입니다.

- **개장기간** : 6월 25일~8월 28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요금** : 성인 7천원 / 청소년 5천원 / 소인 4천원 (30명이상 단체는 20% 할인, 50명이상 단체는 30% 할인(평일에 한함). 단체이용자는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서구 사계절물썰매장 (565-3483, 560-4945)

7월부터 승용차 부제 운영합니다

우리는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우리시에서 승용차 부제 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됩니다.

- **대상지역** : 인천시 전지역
-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제외)
- **운휴일자 및 운휴시간**
 - 10부제 :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번호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 운행하지 않음 (예) 등록번호 11가 1111 차량 : 매월 1, 11, 21일 운휴)

- 5 부제 :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번호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과, 끝자리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 운행하지 않음 (예) 등록번호 11가 1111 차량 : 매월 1, 6, 11, 16, 21, 26일 운휴)
 - ※공휴일, 토요일, 매월 31일은 제외

- **신청방법** : 시청,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혹은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참여인센티브**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56)

유교경전·서에 강좌 열립니다

인천향교에서는 연중 유교 경전과 서예 강좌를 엽니다. 나이나 성별, 신분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강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습료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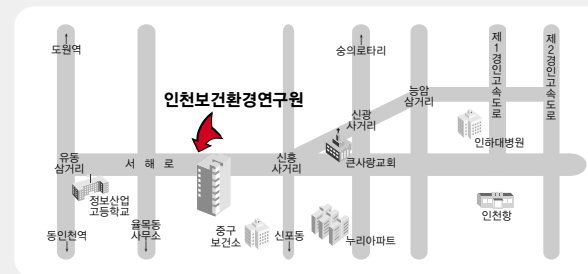
- **강좌내역**
 - 소학강좌 :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오전 12시
 - 논어강좌 : 매주 수·금요일 오전 11시~오전 12시
 - 서예강좌 : 매주 화·금요일 오후 2시~오후 3시
- **장소** : 남구 학익동 677-1 번지 학익 2차 신동아 아파트 정문 맞은편. (교통 : 좌석버스 111번 일반버스 4, 13-1 / 마을버스 515, 520, 518)

문의 _ 인천향교 (876-7041, 873-2041, www.ichyanggyo.or.kr)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구 신흥동으로 이전했습니다

- **장소** :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18-4
- **업무**

검 사 분 야	검 사 내 역	전 화 번 호
식 품	식품 자가품질검사	472-6322 / 019-9141-5268
대 기	대기, 소음진동, 악취검사, 유류중 황 함유량검사	472-6326 / 011-470-6837
수 질	먹는물 등 정수기관련검사, 지하수중 음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 목욕장수, 수영장수, 수처리제, 약수 등 검사	467-7715 011-9073-7152
폐 기 물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분진, 조각재, 광재, 폐사, 폐주물사, 폐유 등 검사	467-8326 / 019-629-9168
환경조사	하천수 검사 환경기초시설 검사	467-8325 / 019-9145-1031 440-6345 / 016-315-2188



문의 _ 보건환경연구원 (777-9713~4)

- **대중교통** : 정보산업고등학교 앞 하차(시내버스 : 15, 21, 28-1), 중구보건소 앞 하차(시내버스 : 4, 5, 6-1, 12, 16, 22, 41, 45, 46), 큰사랑교회 앞 하차(시내버스 : 4, 6, 16, 22, 28-1, 41, 45, 46 / 좌석버스 : 105-1), 누리아파트 앞 하차(시내버스 : 3, 10, 17, 17-1, 23, 24), 보건환경연구원 앞 하차(마을버스 : 517, 519, 521)

‘평화교실’에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족, 특히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원하는 남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인 ‘평화교실’은 전문 상담가와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부상담과 부부집단상담, 1박2일 부부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8월에 초기상담을 시작으로 9월부터 집단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월30일까지 전화(543-7179)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명입니다.

문의 _ 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 (543-7179)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방학프로그램

학산문화원에서는 방학을 맞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8월 1일(월)~30일(화)

•모집대상

- 6세~7세 : 화요일 오후 2시~오후 3시(1시간)
-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 금요일 오후 3시~오후 4시
- 학부모 프로그램 : 비즈공예(재료비 별도)

•수강료 : 10,000원

(재료비 무료, 기본재료(크레파스 가위 등) 지참)

•모집인원 : 각 15명 내외

문의 _ 학산문화원 (866-3992)

근로자 학자금 대부해 드립니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어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 대부금액 : 해당 학기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
- 대부이율 : 연 1%~1.5%,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등상환 (단, 보증 여력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3%)으로 대부 가능)
- 신청 및 접수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및 경인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http://gyeongin.molab.go.kr 게재), 등 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문의 _ 경인지방노동청 능력개발팀 (766-0461)

무료 건강공개 강좌 열립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공개강좌를 엽니다.

•강의일시 : 7월 26일(화) 오후 3시~

•강좌내용 : 성인병과 건강검진

•강사교수 :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장 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기 타 : 공개강좌에 참석자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미추홀문화회관 여름학기 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제16기 여름학기 방학특강 & 체험기행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방학특강

- 내가 짬! 스피치 리더십 교실 : 스피치 & 리더십 교실
- 우리나라 탑 & 건축물 만들기 : 델타샌드 모래놀이
- 로봇 & 물로켓 & 드라아아이스 : 키즈사이언스
- 수학에 자신감!! 하이파이셈 : 쉽고 재미있는 수학
- 해리포터 마술교실
- 영어로 배우는 세계문화여행 : 뮤지컬잉글리쉬
- 만들기랑 판화랑 그림이랑 : 생각하는 표현미술
- 중학 대비 기초 데생 : 토요데생&수채화
- 토우 인형 만들기 : 어린이 도자기 교실
- 고무찰흙을 이용한 바다 여행 : 신기한 고무찰흙
- 다양한 크리스탈 악세사리 만들기 : 비즈 공예
- 폐품을 이용한 공작 교실 : 재미있는 종이공작 교실
- 신나는 방송 댄스 : 어린이 재즈댄스
- 쉽고 재미있는 힙합 댄스 : 어린이 힙합 댄스

•체험기행 : 도자기 체험 기행(8월 4일), 키즈 사이언스 체험 기행 (8월 8일), 미술관 관람(미술과 놀이 3)&감상문 쓰기(8월 12일)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 www.mchart.co.kr)

청소년 학교폭력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시 : 7월 13일 (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주제 : ‘학교폭력으로 명들어 가는 아이들’-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대상 : 교사, 학부모, 청소년 관련지도자 등

아울러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는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되는 구체적 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 사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일시 : 8월 8일(월)~8월 18일(목) 오전 9시~오후 6시

•주제 : ‘상담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급운영’

•대상 : 인천관내 중·고교 교사 40명

•장소 : 본센터 강의실(남동구 간석4동 614-6)

•종별 : 60시간 직무연수 (평가 없음)

•접수 : 7월 4일(월)~ 29일(금)까지 선착순 접수마감

•참가비 : 100,000원(교재비 포함, 식사는 개인부담)

문의 _ 인천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

(429-5562~3 / Fax 429-5569)

문학자전거교실 열립니다

문학경기장에서는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생활에 도움 이 되기위해 자전거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 : 초급 2만원, 중급 3만원

•교육인원 : 매기 30명 (선착순)

•특기사항

- 문학자전거교실에서는 초·중급과정을 배울 수 있는 자전거 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한 교육용 안전 헬멧을 구비하고 있 습니다.

- 중급자과정은 초급자과정 이수 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적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육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_ 문학경기장관리사업소 (456-3020, 456-3026 http://www.munhak.or.kr)

여성복지관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실

- 상담내용 : 가족·신상·이혼·가정폭력·성폭력·법률·아 동·건강문제 등 (변호사 법률상담 월 오후 2시~오후 4시)

- 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 (434-6436~7, 434-0182)

- 간이상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pia.net → 여성상담 → 사이버상담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 안내

•선거일 : 7월 4일(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7월 6일(수) 결선투표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 오후 6시까지

•투·개표소 설치상황(예정)

위원회명	시설명(소재지)	문의전화
중 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중구 경동 220번지)	763-6646
동 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동구 만석동 21)	764-3204
남 구	남구청 대회의실(남구 송의2동 131-1)	887-4117
연 수 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연수구 연수3동 577 영남스포렉스 2층)	817-5727
남 동 구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남동구 만수1동 978-25 만수빌딩 7층)	465-2850
부 평 구	부평구청 중회의실(부평구 부평4동 879)	519-5088
계 양 구	계양구청 지하종합상황실(계양구 계산4동 1079-1)	543-8944
서 구	서구청 대회의실(서구 심곡동 244)	565-7661
강 화 군	강화문예회관 체육관(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39)	934-2172
웅 진 군	웅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중구 송학동 3가 6-6)	777-8092

당신의 소중한 한 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랑입니다.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ic.election.go.kr)



강재구 소령은 호국간성의 도시인 인천(仁川)에서 태어나 인천 창영초등학교를 거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 하였다. 1960년 육군사관학교 제16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수도사단(맹호부대) 제1연대 소대 장, 제1군 부사관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

1965년 한국군 1개 사단의 월남파병이 결정되자, 자원하여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이 되었다. 그 해 중대전투훈련에서 수류탄 실탄 투척훈련 중 한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 한발이 중대원들이 모인 곳에 떨어 졌다. 위기를 직감한 강재구 중대장이 “빨리 피하라!”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쳐서 많은 부하들을 구하고 자신은 28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강재구 소령의 숭고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맹호 제1연대 제3대대를 ‘재구대대’라 명명하여 파월 당시 재구부대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 으며 현재 까지도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

강재구 소령의 모교인 인천 창영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에는 ‘강재구 동상’이 건립되어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살신 성인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1973년 강재구 소령이 산화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강재구 기념관’을 세워 유품 125점을 전시하고 공원을 조성 하여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료제공 _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430-0125)

- **자녀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 대상 : 유치원, 초·중·고생, 직장인, 부모, 일반성인 등
 - 시청각자료 : 성폭력·성희롱 예방 비디오 27종
 - 대여방법 : 1인 3편 이내, 대여기간 3일
-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모집**
 - 자원봉사자 : 무보수로 월 4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자 (상담분야의 경우 상담관련교육(학과전공) 이수자)
 - 수요처 :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 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모집분야 : 상담·노력·미용·수선·도배봉사·학습지도·수지침 등

문의 _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애니메이션 교실 열립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여름방학동안 애니메이션 교실을 진행합니다. TV에서만 보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 7월 8일(금)까지
- 교실 : 7월 19일(화)~30일(토) 매일 오후 2시~오후 4시
- 축제 : 8월 5일(금) 연수구청야외무대 오후 6시
- 대상자 : 인천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착순으로 30명 모집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833-2010~2
 - 인터넷 접수 : <http://cafe.daum.net/2003yism>
 - e-mail 접수 : chlwogmlijj@hanmail.net

- 참가비 : 전액 무료

문의 _ 연수구청소년수련관 (833-2010~2, 팩스 833-2013
www.cafe.daum.net/2003yism)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확대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합니다.

- **지급대상**
 - 뇌성마비 등 뇌병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 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하여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약 6만여명 혜택 확대).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

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 www.nhic.or.kr)

인천대학교 CEO과정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수업연한 : 1년, 매주1회(수요일, 오후 6시 30분~9시 40분)
- 지원자격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관리자, 비영리 단체의 임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 사진(반명함판) 각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7월 4일(월)~29일(금)
- 합격자 발표 : 8월 16일(화), 개별통보
- 등록기간 및 장소
 - 기간 : 8월 16일(화)~26일(금)
 - 장소 : 우리은행 인천대출장소(대학 구내 학생회관 1층 소재)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시립화장장 인터넷으로 예약하세요

우리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으로만 가능했던 화장장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화장장 인터넷 예약제 접속 방법은 인터넷 주소 <http://jm.insiseol.net/> 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검색창에 '장묘공원관리사업소' 입력 후 검색결과에 따라 장묘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약하면 된다.

문의 _ 시설관리공단 장묘공원관리사업소 (507-1207~8)

인천의료원 빈혈무료검사 합니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의료소외계층 (비인가 시설 수용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7월 4일(월)~8일(금)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장소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내과 7)
- 검진명 : 빈혈검사 (CBC)
- 검진인원 : 50명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온 고 지 신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떡케익전문기업
떡과는사람들의 "떡케익"

이젠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http://www.dcake.co.kr>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

떡보의 하루 TM
상표출원 | 40-2005-004319

T.1544-1582